

濟州道 大學生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金恒元*, 高性俊**, 金泰保***

目 次	
I. 研究의 目的	3. 資料處理
II. 研究의 內容	IV. 結果 및 論議
1. 概念定義	가. 政治·이데올로기 領域
2. 概念模型의 設定	나. 經濟·社會領域
III. 研究의 方法	다. 統一·安保·北韓領域
1. 道具	V. 要約 및 結論
2. 標集	附錄

I. 研究의 目的

작금의 우리 학원은 현실정치와 관련하여 이른바 急進左傾化 흐름의 출현으로 커다란 충격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른바 급진좌경 학생들의 수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역사적 시점이나 상황으로 보아서 학원에서의 左傾化 性向과 추세는 결코 학원 자체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政治·社會·教育問題라고 보아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이다.

急進左傾化 흐름의 性向은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대한 부정적 견해다.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을 미국과 일본에 從屬되어 다고 보고 있다. 둘째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치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부정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임.

* 사범대학사회교육과 조교수, ** 사범대학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 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 부교수

하고 이른바 民衆民主主義를 제시하고 從屬理論·네오마르크시즘·新帝國主義論에 심취되어 있다. 세계는 통일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북한의 統一戰略에 동조하는 견해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性向을 가진 학생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흐름을 적절히 처방하지 않으면 학원에 만연되어 갈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진다.

이에 대한 대처는 정치·경제정책의 쇄신과 교육적 처방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처방은 우선 일반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위와 관련된 이념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左傾化 흐름에 대항할 수 있는 이론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한 일이라 보겠다.

한편 우리는 지금 한국 憲政史 38년만에 「대타협」이 처음으로 정치무대의 일상용어가 되고 그 타협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改憲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40년간을 돌이켜 보면 항상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적 열망은 항상 높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을 가진 적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그 법을 실천해 본적이 없었다. 어찌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강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실천할 수 없었을까? 理念을 실천해 나가는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 사이에는 극히 일부일지라도 자유민주주의의 理念과 制度에 대한 회의가 싹트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교육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주도내에 위치한 4개 대학 학생들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롯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와 태도, 한국의 정치, 경제 현실에 대한 認識問題, 민족의 지상과제인 統一·安保 문제에 대한 意識調査를 실시하여 대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研究의 內容

1. 概念定義

政治意識이라는 概念에 대한 定義는 多様하며, 이와 類似한 概念들도 많이 쓰이고 있어 어느 觀點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간결한 定義를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政治意識이라는 概念을 우리 나라에서는 一般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政治文化, 政治的 性向, 政治的 信念, 그리고 政治的 態度 등 類似한 概念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定義되고 있는 政治意識의 概念定義를 보면, 感義英은 政治意識이란 극히 포괄적인 概念이다. 一般적으로 政治人, 政治事象 또는 政治問題에 대하여 갖는 認識 評價 態度를 總稱하여 政治意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政治意識은 미국에서 발달된 政治文化에 가까운 概念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²⁾ 丁得圭는 政治意識이란 일반적으로 政治一般 또는 特定한 政治問題

1) 朴容憲 外, "現代韓國人的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思想과 倫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 309.

2) 感義英, "政治意識의 民主化", 「사회과학논집」 제5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2, p. 63.

에 대하여 갖는 政治行動의 先有定向으로서의 政治的인 思考와 그것에 緣由하는 行動樣式인 態度를 意味한다고 했다.³⁾ 政治學大辭典에서는 政治意識을 政治的인 事象과 政治問題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認識·評價·態度의 總稱이며, 政治的인 行動의 選擇으로 인도하는 意見·判斷·印象·感覺 등의 精神作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政治意識과 類似한 概念들에 대한 定義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政治文化의 概念定義를 보면,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버바(Sidney Verba)는 政治文化란 政治體系가 주민들의 認知, 情意, 評價에로 內面化된 것이다. 한 국가의 政治文化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에게 政治對象에 대한 定向의 類型의 特殊한 分配이다. 定向은 對象과 關係의 內面化된 面이며 그것은 認知的인 定向, 情意的인 定向과 評價의 定向을 포함한다.⁵⁾ 파이(Lucian W. Pye)는 政治文化란 政治過程에 秩序와 意味를 주고 그리고 政治體系 내의 行態를 지배하는 기초가 되는 假定과 규칙을 제공하는 諸態度, 諸信念과 諸感情의 集合이다⁶⁾라고 定義했다.

政治態度에 대한 定義는 學者에 따라 다르며 一貫性을 찾기는 어렵다. 마시알라스(Byron G. Massialas)는 政治態度를 政治文化의 한 樣態로 보고 있다. 즉 政治文化는 政治的인 構造와 對比되는 것으로서 政治秩序에 대한 認知的인 定向 뿐만 아니라 개인의 態度와 느낌을 포함한다고 하였다.⁷⁾ 캠벨(D. T. Campbell)은 政治態度를 “政治對象에 대한 개인의 固有한 潛在的인 傾向”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政治的인 性向에 대해서 알몬드와 버바는 “政治的인 對象에 대한 內面化된 信念과 態度, 즉 政治體制, 그 役割, 役割遂行者, 그 투입과 산출 등에 대한 知識과 信念(認知的인 性向), 感情(情意的인 性向), 意見과 判斷(評價的인 性向)”이라고⁹⁾ 定義하였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政治意識이라는 概念은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類似한 概念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政治意識을 “政治現象이나 政治對象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갖는 認知的·情意的·行動的인 反應性向”이라고 규정을 하기로 한다.

또한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政治意識과 관련이 있는 연구들을 보면,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는 별로 많지 않고 주로 一部 地方大學生들을 對象으로 하거나, 研究範圍도 政治意識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政治觀, 政治的인 態度, 國家觀, 安生意識, 北韓觀들을 다루

- 3) 丁得圭, “韓國人의 政治意識의 構造의 分析”,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논문집, 1970, p.3.
- 4) 鄭仁興 外, 政治學大辭典 (서울: 博英社 1979), pp.1348~1350.
- 5)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p.14~15.
- 6) Lucian W. Pye, “Political Culture”,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12. 1980, p.218.
- 7) Byron G. Massialas, “Citizenship and Political Socialiation”,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1969, p.9.
- 8) D. T. Campbell, “The Indirect Assessment of Social Attitude”, *Psychological Bulletin* No.47, 1950, pp.15~38.
- 9)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 op. cit., p.14.

거나 政治意識을 비교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 代表的인 研究들을 보면, 高永復은 “韓國大學生의 意識과 思想”에서 전국의 24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사회관·민족주의관·정치관 및 이데올로기관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고 있다.¹⁰⁾ 田溶新은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에서 5개교(서울 3, 경북 1, 전남 1)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急進-保守面과 穩健-強硬面으로 나누어서 정치적 태도를 조사하고 있다.¹¹⁾ 洪承稷은 “韓國人的 安保意識”에서 대학생들의 지도층에 대한 態度를 중심으로 1972년과 1976년 조사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¹²⁾ 李命吉은 “地方大學生들의 勝共生活의 分析”에서 경상남도의 3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韓國 地方大學生들이 교육 받은 勝共問題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활하며, 어떻게 알고 비판하고 있으며, 대학생이 지니는 對共產主義, 對北韓觀 및 이에 따른 生活實踐度를 분석하는 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¹³⁾ 金順圭는 “安保意識에 대한 大學生과 勤勞者의 反應研究”에서 釜山과 慶南 所在의 5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北傀의 침략에 대한 沮止能力, 南北韓 經濟力 比較, 南北韓 產業能力 比較, 南北韓 軍事力 比較, 南北韓 外交力 比較 등 5개 문항들을 조사하고 있다.¹⁴⁾ 朴準用은 “南北對話가 南北統一에 미칠 影響과 國民의 反應研究”에서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南北對話에 대한 國民의 反應과 統一問題 및 統一에 관계되는 諸國際政治的 問題를 國民의 政治意識構造를 통해 追跡해 보려 하고 있다.¹⁵⁾ 金恒元은 “韓國大學生의 對北韓觀 研究”에서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1~2개 大學을 선정하여 大學生의 對北韓觀을 政治·經濟·社會·文化次元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¹⁶⁾

그리고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朴容憲 外의 “現代 韓國人的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이다. 이 연구에서는 大學生도 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4천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包括的이고 複合的인 政治意識의 認識對象을 우선 크게 民族·國家, 政治·社會, 統一·安保 領域으로 分類하였으며, 이들 領域의 關聯要素들을 다시 體制·過程·政策의 次元에서 分類하여 총 27개의 下位概念을 設定하였다. 이들 下位概念의 內容要素들은 認知, 感情, 意志 등 세 水準의 心理的 性向으로 分類하여 각각에 대해서 測定道具를 總 148個 問項을 만들어 조사하고 있다.¹⁷⁾

10) 高永復, “韓國大學生의 意識과 思想”, 「現代社會」 6호, 1982, pp. 18~39.

11) 田溶新, “韓國大學生의 政治的 態度”, 「고려대학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15집, 1969, pp. 33~51.

12) 洪承稷, “韓國人的 安保意識-대학생의 지도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 「아세아연구」 제20권 제1호, 아세아 연구소, 1977, pp. 53~84.

13) 李命吉, “地方 大學生의 勝共生活 態도의 分析”, 문교부 연구보고서, 사회과학계 2, 1972, pp. 3

14) 金順圭, “安保意識에 대한 大學生과 勤勞者의 反應研究”, 慶南大學論文集 第四輯, 1977, pp. 129~157.

15) 朴準用, “南北對話가 南北統一에 미칠 影響과 國民의 反應研究”, 釜山大學校 法政大 法學研究 제17권, 1975, pp. 89~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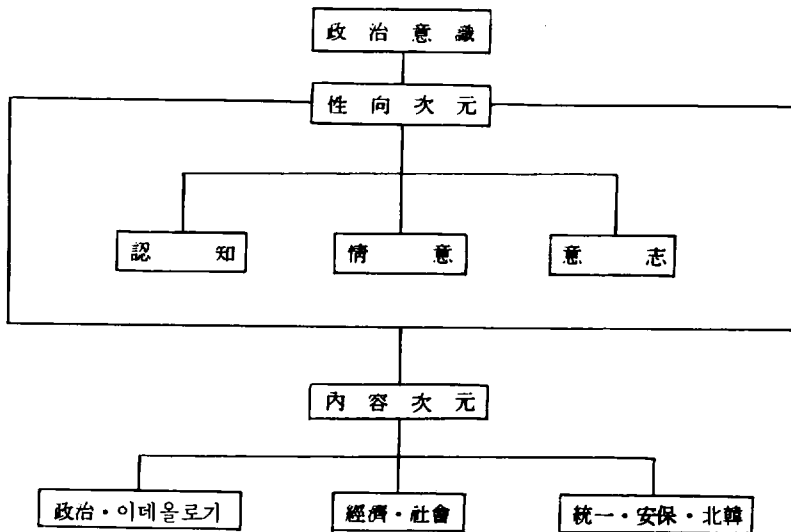
16) 金恒元, “韓國大學生의 對北韓觀 研究”, 「民族문화와 國民精神」,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pp. 353~421.

17) 朴容憲 外, 前掲書, pp. 307~326.

2. 概念模型의 設定

〈表-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包括的이고 複合的인 政治意識의 認識對象 중에서 內容次元 에서는 政治·이데올로기, 經濟·社會, 統一·安保·北韓 領域으로 分類하였으며, 心理的 性向 次元에서는 態度構成理論¹⁸⁾을 토대로 認知·情意·意志로 구분하였다.

〈表-1〉 政治意識의 概念模型



Ⅲ. 研究 方法

1. 道具

앞에서 제시한 政治意識의 概念模型을 토대로 測定道具를 製作하였다. 製作過程은 研究陣에 의해 政治意識에 관련된 國內의 既存研究들의 內容要素 및 問項들을 拔萃·分析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概念模型을 設定하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의 論議過程을 거쳐 政治意識의 領域에 포함된 內容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內容들을 心理的 性向에 따라 問項들을 作成하였다. 특히 朴容憲 外의 “現代 韓國人의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¹⁸⁾의 問項들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18) 朴容憲, 「社會的 行動과 學習」, 敎育出版社, 1976, pp. 298~312.

19) 朴容憲 外, 前掲書, pp. 555~561.

이 問項들은 政治意識 55問項, 背景調査 6問項, 그리고 2개의 誠意度 檢證問項 등 總 63問項이다. 이 問項 中 本 研究의 中核을 이루는 政治意識診斷을 위한 55問項은 對象內容領域別과 認識性向次元別로 제시하면 <表-2>와 같다.

<表-2> 調查道具의 構成內容 및 問項數

領 域	次 元	性 向 次 元			計
		認 知	情 意	意 志	
정 치 · 이 데 올 로 기	정 치	7	1	2	10
	이 데 올 로 기	12	0	3	15
경 제 · 사 회	경 제	6	2	0	8
	사 회	4	1	0	5
통 일 · 안 보 · 북 한	통 일	2	0	2	4
	안 보	2	2	2	6
	북 한	4	2	1	7
계		37	8	10	55

7개의 問項은 選多型이었고 이것을 제외한 48개의 問項들은 各問項 마다 5段階의 反應答紙가 주어지는 Likert식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 것 같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아닌 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으로 配點하여 反應結果를 점수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많을 수록 肯·否定的 傾向이 높음을 뜻하며, 肯·否定的 基本은 대체로 3점을 중심으로 左右傾向성을 가지고 全體적으로 解釋하였다.

2. 標集

濟州道 大學生의 母集團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도내 4개 대학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학생수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대학교의 경우 각 단과대학, 인문·사회계와 자연계 및 학년을 고려하여 標集對象을 選定하였으며, 제주대학교 800명, 제주교육대학 40명, 제주간호보건의전문대학 60명, 제주실업전문대학 100명 등 總 1,000명을 對象으로 하였다.

標集은 1986년 12월 1일 부터 12월 6일 사이에 質問紙를 實施·回收하였다. 質問紙 實施方法은 各 大學(校)의 교수님들의 협조를 얻어 質問紙를 實施·回收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質問紙方法이 갖고 있는 短點인 各問項에 대한 反應의 率直性和 誠意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缺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이른바 誠意度檢證方法(lying detect technique)을 적용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誠意度檢證을 위하여 두 쌍의 問項을 反對方向으로 진술하여(問項 13번과 37번, 問項 21번과 52번) 그 反應에 一貫性이 없는 경우 除外시키도록 하였다. 質問紙의 實施結果는 다음 <表-3>에 提示된 바와 같으며, 質問紙를 실시하여 回收된 數는 860名이었다.

標集된 總 860名 중 質問紙의 全問項에 反應을 하지 않았거나 위에서 지적한 '誠意度檢證問項'에 一貫性이 缺如된 293名을 제외하고 실제로 分析의 對象으로 취급된 標集數는 567名이었다. 따라서 최종적 分析對象으로 選定된 標集의 背景變因別數는 <表-4>에 제시된 바와 같다.

<表-3> 大學別 質問紙 實施對象者數와 回收狀況

大 學 (校)	實施對象者數	回 收	回 收 率 (%)
제 주 대 학 교	800명	666명	83.3
제 주 교 육 대 학	40명	40명	100
제 주 간 호 전 문 대 학	60명	57명	95
제 주 실 업 전 문 대 학	100명	97명	97
계	1,000명	860명	86

<表-4> 背景變因別 標集人員

背 景 變 因	變 因 區 分					計
	남	여				
性 別	235	332				567
학 年 別	1 학 年 164	2 학 年 187	3 학 年 이상 216			567
전 공 別	인문사회계 355	자 然 계 212				567
가 정 형 편 別	매 우 여 유 4	비 교 적 여 유 81	그 런 대 로 유 지 345	곤 란 108	매 우 곤 란 29	567
서 어 클 가 입 여 부 別	가 입 189	비 가 입 278				567
가 경 화 목 別	화 목 156	보 통 380	화 목 치 못 함 31			567

3. 資料處理

蒐集된 資料의 分析을 위해서는 濟州大學校 電子計算所의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研究에서 사용된 統計値는 平均(M), 百分比(%), F檢證을 사용하였다.

資料의 分析 및 提示方法은 全體 및 背景變因別 各集團間에 平均(M)과 百分比(%)를 가지고 各問項에 대한 응답자의 反應傾向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5段階의 反應分布를 대체로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를 합쳐 '그렇다'로 '아닌 것 같다'와 '확실히 아니다'를 합쳐 '아니다'로 合算 提示하여 解釋하는 경우가 많았다. 背景變因別 各集團間의 差의 意義度檢證은 F檢證을 적용시켰으며, 集團間에 差異가 거의 없는 問項에 대해서는 全體反應結果만 提示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標集人員數가 아주 적은 가정형편별로 매우여유(4명)는 結果 및 論議에서 除外하기로 하였다.

IV. 結果 및 論議

概念模型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政治意識은 內容次元과 性向次元別로 製作된 55問項에 대한 標集對象들의 반응결과를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反應傾向 및 反應分布를 제시하고, 둘째 標集對象의 背景變因別 有意한 差가 있는가를 分析하여 그 有意한 差의 結果를 중심으로 反應傾向을 解釋하고 論議하며, 셋째,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를 차례로 分析하면서 論議하여, 넷째 全體 및 背景變因別 各 集團間에 두드러진 差異가 있거나, 各 問項間에 의미있는 差가 있는 反應結果를 綜合해서 提示하기로 한다.

가. 政治·이데올로기 領域

政治·이데올로기 領域은 政治와 이데올로기 次元으로 나누고 그것을 性向次元에 따라 分析하기로 한다.

1. 政治次元

政治에 대한 대학생들의 認識性向을 파악하기 위해 10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性向次元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제시하면, 認知水準에서는 우리 나라의 先決問題, 憲法과 政治의 관련성에 관한 認識, 人物 中心의 政治的 選好, 國會權限 強化與否, 合憲改憲에 대한 전망,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 國家權威의 認識 등이다. 情意水準에서는 政治에 대한 關心, 意志水準에서는 改憲意志와 政治能力感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分析하기로 한다.

1) 우리 나라의 先決問題

대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先決問題를 어떻게 認知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이라는 問項을 제시하였다. 이 問項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反應結果를 보면, 정치발전(39.5%), 빈부격차해소(28.6%), 통일(19.2%), 경제발전(1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우리 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치발전과 빈부격차 해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는 <表-5>에 제시된 바와 같다.

<表-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체 반응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 배경변인별 반응결과면을 제시하겠다. 1학년 학생들은 정치발전(36.6%), 통일(23.8%), 빈부격차해소(21.3%), 경제발전(18.3%)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공제열별로 보면, 인문·사회계는 정치발전(36.1%), 통일(23.4%)인데 비해서 자연계는 정치발전(45.3%), 통일(12.3%)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정형편별로 보면,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 출신 학생들의 반응은 빈부격차해소(30.9%), 정치발전(29.6%),

〈表-5〉 우리 나라의 先決問題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반응구분 (%)				
	통일	경제발전	빈부격차 해소	정치발전	계
567	19.2	12.7	28.6	39.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반응구분 (%)			
			통일	경제발전	빈부격차 해소	정치발전
성별	남	41.4	15.7	12.3	32.8	39.1
	여	58.6	21.7	13.0	25.6	39.8
학년별	1학년	28.9	23.8	18.3	21.3	36.6
	2학년	33.0	17.6	9.1	33.1	40.1
	3학년이상	38.1	17.1	11.6	30.1	41.2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23.4	13.0	27.6	36.1
	자연계	37.4	12.3	12.3	30.2	45.3
가정형편별	매우여유	0.7	25.0	0.0	0.0	75.0
	비교적여유	14.3	21.0	18.5	30.9	29.6
	그런데로여유	60.8	19.7	11.0	25.5	43.8
	곤란	19.0	14.8	12.0	36.1	37.0
	매우곤란	5.1	24.1	20.7	34.5	20.7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18.3	14.5	24.2	42.9
	비가입	49.0	20.1	10.8	33.1	36.0
가정화목별	매우화목	27.5	23.1	11.5	24.4	41.0
	보통	67.0	18.2	12.4	30.3	39.2
	화목치못함	5.5	12.9	22.6	29.0	35.5

통일(21%), 경제발전(18.5%)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우 곤란한 가정출신의 학생들은 빈부격차 해소(34.5%), 통일(24.1%), 경제발전(20.7%), 정치발전(20.7%)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형편과 우리 나라의 先決問題間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憲法과 政治의 관련성에 관한 認識

대학생들의 憲法과 政治의 관련성에 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헌법만 좋으면 정치는 잘 될 것이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반응결과만 다음 〈表-6〉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6〉 憲法과 政治의 관련성에 관한 認識의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1.880	0.982	2.3	7.8	5.8	43.9	40.2	100

〈表-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84.1%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10.1%만이 ‘그런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憲法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人物中心의 政治的 選好

대학생들이 人物中心의 政治的 選好에 대하여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는 제도 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7〉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7〉 人物中心의 政治的 選好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376	1.034	62.8	25.2	1.9	6.9	3.2	100

〈表-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8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 62.8%가 ‘확실히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거의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정치는 제도 보다는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4) 國會權限 強化與否

대학생들의 國會權限 強化與否에 대하여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다음 〈表-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회권한 강화에 대한 긍정적 반응(59.6%)이 부정적 반응(27.7%) 보다 높게 나타나 국회권한 강화의 認識性向이 높은 편이다.

〈表-8〉에 나타난 全體反應性向을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학년별($P < .05$)과 가정화목별($P < .05$)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적 반응을 점차 높게 보이고 있으며, 가정의 화목별로는 매우 화목($M=3.36$), 보통($M=3.58$), 화목치 못함($M=4.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목치 못한 가정으

〈表-8〉 國會權限 強化與否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體反應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554	1.327	31.6	28.0	12.7	19.6	8.1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66	1.38	2.016	38.7	24.3	9.8	18.7	8.5
	여	58.6	3.48	1.29		26.5	30.7	14.8	20.2	7.8
학년별	1학년	28.9	3.40	1.36	3.620	27.4	26.8	14.0	21.3	10.4
	2학년	33.0	3.47	1.38		32.6	22.5	13.4	22.5	9.1*
	3학년이상	38.1	3.75	1.23		33.8	33.8	11.1	15.7	5.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52	1.32	0.587	30.1	28.7	12.4	20.8	7.9
	자연계	37.4	3.60	1.34		34.0	26.9	13.2	17.5	8.5
가정형편별	매우여유	0.7	2.50	1.73	1.111	25.0	0.0	0.0	50.0	25.0
	비교적여유	14.3	3.63	1.29		32.1	30.9	11.1	19.8	6.2
	그런대로유지	60.8	3.49	1.33		25.1	30.4	13.3	18.3	9.9
	곤란	19.0	3.67	1.29		38.0	20.4	15.7	22.2	3.7
	매우곤란	5.1	3.86	1.41		48.3	24.1	0.0	20.7	6.9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55	1.33	0.046	31.8	27.3	12.5	20.8	7.6
	비가입	49.0	3.56	1.33		31.3	28.8	12.9	18.3	8.6
가정화목별	매우화목	27.5	3.36	1.35	4.256	25.6	27.6	14.7	21.2	10.9
	보통	67.0	3.58	1.32		32.4	28.2	12.6	19.2	7.6
	화목치 못함	5.5	4.16	1.10		51.6	29.0	3.2	16.1	0.0

* p < .05

로 갈수록 국회권한 강화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性別로는 남자(M=3.66)가 여자(M=3.48)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으며, 가정형편별로는 일관성은 없으나 매우곤란(M=3.86)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5) 合意改憲에 대한 展望

대학생들이 合意改憲에 대해서 어떻게 展望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합의개헌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다음 〈表-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합의개헌은 이루어

어질 것이다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51.5%,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30%, 긍정적 반응이 18.5%로 나타나고 있어 合意改憲 展望에 대한 否定的 性向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表-9〉 合意改憲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2.563	1.116	6.9	11.6	30.0	33.9	17.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2.23	1.10	35.082	5.5	6.4	21.3	38.7	28.1
	여	58.6	2.80	1.07		7.8	15.4	36.1	30.4	10.2
학년별	1학년	28.9	2.73	1.14	0.734	7.9	15.9	32.3	29.3	14.6
	2학년	33.0	2.44	1.15		7.5	8.6	26.7	35.3	21.9
	3학년이상	38.1	2.54	1.07		5.6	11.1	31.0	36.1	16.2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2.58	1.10	1.710	6.8	11.8	30.1	34.9	16.3
	자연계	37.4	2.54	1.14		7.1	11.3	29.7	32.1	19.8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1.50	0.58	6.234	0.0	0.0	0.0	50.0	50.0
	비교적 여유	14.3	2.88	1.09		9.9	13.6	40.7	25.9	9.9
	그런대로 유지	60.8	2.62	1.13		7.2	13.6	29.3	33.3	16.5
	곤란	19.0	2.24	0.99		2.8	6.5	27.8	38.0	25.0
	매우 곤란	5.1	2.38	1.18		10.3	3.4	20.7	44.8	20.7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2.56	1.10	0.422	5.9	12.5	31.1	32.5	18.0
	비가입	49.0	2.57	1.13		7.9	10.8	28.8	35.3	17.3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2.50	1.13	3.328	6.4	10.9	29.5	32.7	20.5
	보통	67.0	2.56	1.08		6.3	10.8	31.3	35.8	15.8
	화목치 못함	5.5	2.90	1.47		16.1	25.8	16.1	16.1	25.8

* $p < .05$ ** $p < .01$

〈表-9〉에 나타난 全體反應傾向을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P < .01$), 가정형편별($P < .01$), 가정화목별($P < .05$)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M=2.23$)가 여자($M=2.80$) 보다 부정적 반응을 더 높게 보이고 있고, 가정형편별로는 비교적 여유($M=2.88$), 그런대로 유지($M=2.62$), 곤란($M=2.24$), 매우 곤란($M=2.38$)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부

정적 반응을 더 높게 보이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매우화목(M=2.50), 보통(M=2.56), 화목치 못함(M=2.90) 순으로 부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어 특이하다 하겠다.

학년별, 전공계열별 및 서어클 가입여부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다.

6)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

대 학생들이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하여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민족사의 흐름을 계승하는 정치체제는 남한이지 북한은 아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1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긍정적 반응(65.8%)이 부정적 반응

<表-10>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818	1.256	40.4	25.4	16.4	11.3	6.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03	1.28	9.213	53.2	18.7	12.3	8.9	6.8
	여	58.6	3.67	1.22		31.3	30.1	19.3	13.0	6.3
학년별	1학년	28.9	3.79	1.28	0.753	40.9	23.2	17.1	12.2	6.7
	2학년	33.0	3.80	1.29		41.2	24.1	16.0	11.2	7.5
	3학년이상	38.1	3.85	1.21		39.4	28.2	16.2	10.6	5.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2	1.29	3.638	38.0	23.9	17.5	13.2	7.3
	자연계	37.4	3.98	1.18		44.3	27.8	14.6	8.0	5.2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25	0.50	0.849	25.0	75.0	0.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69	1.23		30.9	33.5	17.3	11.1	7.4
	그런대로 유지	60.8	3.85	1.23		41.7	23.8	17.4	11.9	5.2
	곤란	19.0	3.77	1.34		40.7	25.9	12.0	12.0	9.3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3.91	1.20	3.853	42.6	26.3	15.6	10.7	4.8
	비가입	49.0	3.72	1.31		38.1	24.5	17.3	11.9	8.3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78	1.26	1.848	37.8	27.6	17.3	9.6	7.7
	보통	67.0	3.86	1.24		41.6	25.5	16.1	11.1	5.8
	화목치 못함	5.5	3.48	1.46		38.7	12.9	16.1	22.6	9.7

* p < .05

**p < .01

(17.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금까지 南韓이 民族史的 正統性을 이어 받고 있다고 교육을 받아 왔는데 34.2%나 되는 대학생들이 부정적이거나 잘 모르겠다(16.4%)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시 된다.

〈表-10〉에 나타난 全體反應傾向을 背景變因別로 分析해 보면, 性別($P<.01$)과 써어클 가입여부별($P<.05$)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M=4.03$)가 여자($M=3.67$)보다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가입($M=3.91$)이 비가입($M=3.72$)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학년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3.98$)가 인문·사회계($M=3.72$)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형편별이나 가정화목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다.

7) 國家權威의 認識

대학생들이 國家權威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국가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니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11〉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1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89.7%)이 부정적 반응(8.8%)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니라는 認識性向이 매우 높다고 해석이 된다.

〈表-11〉 國家權威의 認識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476	1.086	72.8	16.9	1.4	2.6	6.2	100

8) 政治에 대한 關心

대학생들이 政治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나의 삶과 직결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1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66.8%, 부정적 반응이 24.2%,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9.0%로 나타나고 있다.

〈表-12〉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M=3.91$)가 여자($M=3.59$)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2학년($M=3.91$), 1학년($M=3.71$), 3학년 이상($M=3.5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학년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3학년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비가입자($M=3.39$)가 가입자($M=3.66$)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매우 곤란($M=3.97$)이 가장 높게, 그런대로 유지($M=3.67$)가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화목별로는 화목치 못함(M=4.03), 매우 화목(P<.01)(M=3.735, 보통(M=3.6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화목치 못한 가정출신 학생들이 긍정적 반응을 가장 높게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表-12〉 政治에 대한 關心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567	3.723	1.317	37.2	29.6	9.0	16.6	7.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91	1.31	7.446	44.7	29.8	6.4	10.2	8.9
	여	58.6	3.59	1.31		31.9	29.5	10.8	21.1	6.6
학년별	1학년	28.9	3.71	1.37	2.918	40.2	23.8	12.2	14.6	9.1
	2학년	33.0	3.91	1.26		42.2	32.1	6.4	12.8	6.4
	3학년이상	38.1	3.57	1.32		30.6	31.9	8.8	21.3	7.4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2	1.32	0.019	37.7	28.5	9.3	17.5	7.0
	자연계	37.4	3.72	1.32		36.3	31.6	8.5	15.1	8.5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75	0.50	0.871	75.0	25.0	0.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78	1.24		35.8	30.9	14.8	12.3	6.2
	그런대로 유지	60.8	3.67	1.33		35.1	30.7	7.5	19.1	7.5
	곤란	19.0	3.76	1.36		41.7	25.0	9.3	15.7	8.3
서어칼가입여부별	가입	51.0	3.66	1.33	1.526	34.6	30.8	8.7	17.6	8.3
	비가입	49.0	3.79	1.30		39.9	28.4	9.4	15.5	6.8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75	1.36	0.641	41.7	24.4	9.0	17.3	7.7
	보통	67.0	3.69	1.30		34.2	32.1	9.2	17.1	7.4
	화목치 못함	5.5	4.03	1.33		51.6	25.8	6.5	6.5	9.7

** p < .01

9) 改憲意志

대학생들의 改憲意志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問項을 제시

한 결과, <表-1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73.1%)이 부정적 반응(10.4%)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改憲意志가 강하다고 해석이 된다.

<表-13> 改憲意志에 대한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134	1.132	54.1	19.0	16.4	6.9	3.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33	1.11	8.649	66.4	13.2	10.2	7.2	3.0
	여	58.6	4.00	1.13		45.5	23.2	20.8	6.6	3.9 **
학년별	1학년	28.9	3.91	1.18	5.952	42.7	23.8	19.5	9.8	4.3
	2학년	33.0	4.37	1.05		66.3	15.5	10.7	4.3	3.2 **
	3학년이상	38.1	4.10	1.13		52.3	18.5	19.0	6.9	3.2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4.16	1.10	4.181	53.5	22.0	15.2	5.9	3.4
	자연계	37.4	4.08	1.19		55.2	14.2	18.4	8.5	3.8 *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25	0.96	0.933	50.0	25.0	25.0	0.0	0.0
	비교적 여유	14.3	4.12	1.11		49.4	28.4	11.1	7.4	3.7
	그런대로 유지	60.8	4.07	1.13		50.4	19.7	19.1	7.5	3.2
	곤란	19.0	4.29	1.14		65.7	11.1	13.0	6.5	3.7
서어클가입 여부별	매우 곤란	5.1	4.38	1.15	2.591	69.0	13.8	10.3	0.0	6.9
	가입	51.0	4.06	1.15		50.5	19.4	19.7	6.2	4.2
가정화목별	비가입	49.0	4.21	1.11	0.659	57.9	18.7	12.9	7.6	2.9
	매우 화목	27.5	4.21	1.06		56.4	17.9	17.3	6.9	1.9
	보통	67.0	4.09	1.16		52.1	20.5	16.1	6.5	4.5
	화목치 못함	5.5	4.32	1.08	67.7	6.5	16.1	9.7	0.0	

* p < .05

** p < .01

<表-13>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01), 학년별(P<.01), 전공계열별(P<.05)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性別로는 남자(M=4.33)가 여자(M=4.00) 보다 改憲意志가 강하며, 학년별로는 2학년(M=4.37), 3학년 이상(M=4.10), 1학년(M=3.91)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M=4.16)가 자연계(M=4.08) 보다 改憲意志가 비교적 더 강함을 보여 주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일관성이 없으나 곤란(M=4.29)과 매우 곤란(M=4.38)이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비교적 여유(M=4.12)와 그런대로 유지(M=4.07)는 비교적 낮은 반응을 보이고있다.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비가입(M=4.21)이 가입(M=4.06) 보다 높게, 가정화목별로는 화목치 못함(M=4.32)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특이하다 하겠다.

10) 政治能力感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政治的 能力感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키워갈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14>에서

<表-14> 政治能力感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880	1.172	40.6	27.0	15.0	14.8	2.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00	1.23	4.175	49.4	23.0	8.9	15.3	3.4
	여	58.6	3.80	1.13		34.3	29.8	19.3	14.5	2.1*
학년별	1학년	28.9	3.96	1.16	2.405	43.9	25.0	17.7	9.8	3.7
	2학년	33.0	3.80	1.26		41.7	22.5	13.4	19.3	3.2
	3학년이상	38.1	3.89	1.11		37.0	32.4	14.4	14.8	1.4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81	1.19	3.264	38.6	25.6	17.2	15.8	2.8
	자연계	37.4	3.99	1.14		43.9	29.2	11.3	13.2	2.4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75	0.50	2.162	75.0	25.0	0.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64	1.27		33.3	25.9	18.5	16.0	6.2
	그런대로 유지	60.8	3.96	1.13		43.2	27.2	13.9	13.9	1.7
	곤란	19.0	3.78	1.22		37.0	27.8	14.8	16.7	3.7
	매우 곤란	5.1	3.83	1.14		37.9	24.1	20.7	17.2	0.0
써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3.90	1.14	0.417	39.4	29.4	14.5	14.5	2.1
	비가입	49.0	3.86	1.21		41.7	24.5	15.5	15.1	3.2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78	1.25	1.390	40.4	23.7	12.2	21.2	2.6
	보통	67.0	3.90	1.14		39.7	28.9	15.5	13.2	2.6
	화목치 못함	5.5	4.13	1.09		51.6	19.4	22.6	3.2	3.2

* p < .05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7.6%)이 부정적 반응(17.4%)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政治的能力感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表-14〉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 < .05$)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M=4.00$)가 여자($M=3.8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남자가 政治能力感이 더 높음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과 전공계열별로는 1학년($M=3.96$), 3학년 이상($M=3.89$), 2학년($M=3.80$)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1학년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계($M=3.99$)가 인문·사회계($M=3.81$) 보다 긍정적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형편별과 가정화목별로는 그런대로 유지($M=3.96$)가 가장 높고 비교적 여유($M=3.64$)가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화목치 못함($M=4.13$), 보통($M=3.90$), 매우 화목($M=3.7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화목치 못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政治와 관련하여 설정된 10개 問項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에 나타난 傾向性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先決問題는 정치발전(39.5%), 빈부격차 해소(28.5%), 통일(19.2%), 경제발전(12.7%) 순으로 나타났고, 憲法과 政治의 관련성에 關한 認識(否定的 反應率 84.1%), 人物中心의 政治的 選好(88%), 國會權限 強化與否(59.6%), 合意改憲에 對한 展望(否定的 反應率 51.5%),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65.8%), 國家權威의 認識(89.7%), 政治에 對한 關心(66.8%), 改憲意志(73.1%), 政治能力感(67.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政治發展을 들고 있으며, 政治는 制度보다도 運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고, 민주정치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국회 권한 강화, 정치능력감 및 정치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은 것은 주목이 된다. 그리고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에 對한 認識이 비교적 낮은 것은 문제시 되며, 改憲意志는 비교적 높으나 合意改憲에 對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政治에 對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背景變因別로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 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 높은 긍정적인 認識性向을 보이고 있다.

2. 이데올로기 次元

이데올로기에 대한 認識性向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性向次元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제시하면, 認知水準에서는 마르크스에 대한 認知經路,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認識, 자본가 계층이 노동자 계층에 대한 認識,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에 대한 認識, 노동자 革命 可能性, 노동자의 權力掌握에 대한 認識, 急進左傾思想에 대한 認識, 民主主義의 多樣性, 階級 없는 사회의 實現可能性, 마르크스 사상의 現代社會에 適用可能性, 共產主義의 非傳統性, 共產主義體制의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增進의 限界性 등이다. 意志水準에서는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守護意志, 暴力革命 이데올로기에 대한 支持與否, 私有財產制 폐지 등이다. 그리고 情意水準의 문항은 設定되지 못했다. 各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마르크스에 대한 認知經路

대학생들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르크스를 알게 되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귀하는 마르크스에 관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15>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15> 마르크스에 대한 認知經路의 全體反應結果

N	반 응 구 분 (%)				
	강 의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고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고	기 타	계
567	60.8	1.6	26.5	11.1	100

<表-1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강의(60.8%),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고(26.5%), 기타(11.1%), 마르크스가 직접 쓴 작품을 읽고(1.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강의와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고(87.3%) 마르크스를 알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마르크스主義를 어떻게 認知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귀하가 아는 바로 마르크스주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16>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16>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認識의 全體反應結果

N	반 응 구 분 (%)				
	폭 력 혁 명	폭력주의와 인도주의의 혼합	인 도 주 의	잘 모르겠다	계
567	27.9	43.7	8.1	20.3	100

<表-1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主義에 대해서 폭력주의와 인도주의 혼합(43.7%), 폭력혁명(27.9%), 잘 모르겠다(20.3%), 인도주의(8.1%)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마르크스主義를 폭력주의와 인도주의 혼합 내지는 폭력혁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인도주의라는 반응도 8.1%나 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3) 자본가계층이 노동자계층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자본가계층이 노동자계층에 대한 認識을 알아 보기 위하여 “자본가 계층은 노동자 계층에 대하여”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1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착취적이다(62.3%), 독재적이다(20.5%), 모르겠다(10.2%), 민주적이다(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본가 계

〈表-17〉 자본가 계층이 노동자 계층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반응구분 (%)				
	착취적	독재적	민주적	잘 모르겠다	계
567	62.3	20.5	7.1	10.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반응구분 (%)			
			착취적	독재적	민주적	모르겠다
성별	남	41.4	65.5	18.7	8.5	7.2
	여	58.6	59.9	21.7	6.0	12.3
학년별	1학년	28.9	57.3	17.7	9.8	15.2
	2학년	33.0	72.7	16.6	5.3	5.3
	3학년이상	38.1	56.0	25.9	6.5	10.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64.5	17.5	6.2	11.8
	자연계	37.4	58.5	25.5	8.5	7.5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50.0	25.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44.4	22.2	17.3	16.0
	그런대로 유지	60.8	62.6	21.7	5.8	9.9
	곤란	19.0	73.1	16.7	3.7	6.5
	매우 곤란	5.1	69.0	13.8	6.9	10.3
써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57.8	21.8	9.7	10.7
	비가입	49.0	66.9	19.1	4.3	9.7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59.6	23.1	5.1	12.2
	보통	67.0	62.9	19.7	7.6	9.7
	화목치 못함	5.5	67.7	16.1	9.9	6.5

층은 노동자 계층에 대하여 착취적이거나 독재적이다 라는 반응이 82.8%나 되고 있어 문제시 된다.

〈表-17〉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은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자본가 계층은 노동자 계층에 대하여 착취적이라고 보는 반응이 性別, 전공계열별,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남자(65.5%)가 여자(59.9%) 보다, 인문·사회계(64.5%)가 자연계(58.5%) 보다, 써어클 非가입(66.9%)이 가입(57.8%)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57.3%)과 3학년(56.1%)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2학년(72.7%)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73.1%), 매우 곤란(69%)이 높게 비교적 여유(44.4%)가 낮게, 가정화목별로는 화목하지 못할수록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학년과 곤란한 가정 출신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4)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대하여”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1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불신한다(51.7%), 적대적이다(25.9%), 아첨적이다(16.8%), 호의적이다(5.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신하거나 적대적이다 라는 반응이 77.6%나 되고 있고 호의적으로 보는 것은 5.6%에 불과함으로 문제시 된다.

<表-18>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반응구분 (%)				
	절대적	불신한다	호의적	아첨적	계
567	25.9	51.7	5.6	16.8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반응구분 (%)			
			절대적	불신한다	호의적	아첨적
성별	남	41.4	18.3	57.0	6.8	17.9
	여	58.6	31.3	47.9	4.8	16.0
학년별	1학년	28.9	32.3	45.1	7.9	14.6
	2학년	33.0	25.7	52.9	5.9	15.5
	3학년이상	38.1	21.3	55.6	3.7	19.4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29.6	50.7	5.4	14.4
	자연계	37.4	19.8	53.3	6.1	20.8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0.0	50.0	25.0	25.0
	비교적 여유	14.3	24.7	42.0	12.3	21.0
	그런대로 유지	60.8	29.0	51.9	3.2	15.9
	곤란	19.0	16.7	60.2	7.4	15.7
	매우 곤란	5.1	31.0	44.8	6.9	17.2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23.9	48.4	8.7	19.0
	비가입	49.0	28.1	55.0	2.5	14.4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25.0	53.8	4.5	16.7
	보통	67.0	26.8	50.3	5.8	17.1
	화목치 못함	5.5	19.4	58.1	9.7	12.9

〈表-18〉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 전공계열별,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적대적이거나 불신한다' 라는 반응이 여자(79.2%)가 남자(75.3%) 보다, 인문·사회계(80.3%)가 자연계(73.1%) 보다, 씨어클 非가입(83.1%)이 가입(72.3%) 보다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적대적이다'라는 반응만을 보면, 1학년(32.3%), 2학년(25.7%), 3학년 이상(21.3%)로 학년이 낮을수록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적대적이거나 불신한다'라는 반응이 그런대로 유지(80.9%)가 가장 높고 비교적 여유(66.7%)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불신한다 라는 반응이 높은 집단은 인문·사회계(80.3%), 씨어클 非가입(83.1%), 그런대로 유지(80.9%) 등이며, 낮은 집단은 자연계(73.1%), 씨어클 가입(72.3%), 비교적 여유(66.7%) 등이다.

5) 노동자 革命可能性

대학생들이 노동자 革命可能性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노동자 혁명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1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가능성이 있다(62.1%), 필연적으로 일어난다(22.6%), 불가능하다(9.7%), 잘모르겠다(5.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반응이 22.6%나 되고 있어 문제시 된다.

〈表-19〉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 전공계열별,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반응이 여자(25%)가 남자(19.1%) 보다, 인문·사회계(23.9%)가 자연계(20.3%) 보다, 씨어클 非가입(25.2%)이 가입(20.1%) 보다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능성은 있다'는 반응이 자연계(67%)가 인문·사회계(59.2%) 보다, 씨어클 가입(66.8%)이 非가입(57.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노동자 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반응이 1학년(28%), 2학년(24.1%), 3학년 이상(1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일관성이 없으나 매우 곤란(3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가정화목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노동자 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반응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1학년(28.0%), 매우 곤란(31.0%) 등이며, 비교적 낮은 집단은 남자(19.1%)와 3학년 이상(17.1%)이다.

6) 노동자의 權力掌握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의 노동자의 權力掌握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만일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한다면"이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2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정권은 불가능하다(37.4%), 구체제의 인사들과 손을 잡아 유지할 것이다(30.2%), 잘모르겠다(16.6%), 잘 유지할 수 있다(10.4%), 공산당 독재가 될 것이다(5.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20〉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노동자의 정권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性別, 전공계열별,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41.5%), 2학년(39.6%), 3학년 이상(3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

〈表-19〉 노동자 革命可能性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體反應결과

N	반응구분 (%)				계
	필연적	가능성있음	불가능	잘모르겠다	
567	22.6	62.1	9.7	5.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반응구분 (%)			
			필연적	가능성있음	불가능	잘모르겠다
성별	남	41.4	19.1	62.1	12.8	6.0
	여	58.6	25.0	62.0	7.5	5.4
학년별	1학년	28.9	28.0	56.1	9.8	6.1
	2학년	33.0	24.1	58.8	12.8	4.3
	3학년이상	38.1	17.1	69.4	6.9	6.5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23.9	59.2	9.9	7.0
	자연계	37.4	20.3	67.0	9.4	3.3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50.0	25.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25.9	55.6	13.6	4.9
	그런대로 유지	60.8	20.6	63.5	9.6	6.4
	곤란	19.0	23.1	63.0	9.3	4.6
	매우 곤란	5.1	31.0	65.5	3.4	0.0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20.1	66.8	9.0	4.2
	비가입	49.0	25.2	57.2	10.4	7.2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23.7	59.0	8.3	9.0
	보통	67.0	22.1	62.9	10.8	4.2
	화목치 못함	5.5	22.6	67.7	3.2	6.5

을수록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할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가정화목별로는 화목치 못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노동자 정권이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이 높은 집단은 1학년(41.5%), 비교적 여유(49.4%) 등으로 특히 여유있는 가정 출신 학생들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반응이 낮은 집단은 매우 곤란(17.2%), 화목치 못함(25.8%)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빈부격차 해소가 노동자의 권력장악 가능성을 막는 길이라고 해석이 된다.

〈表-20〉 노동자의 權力掌握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반응구분 (%)					
	잘유지	불가능	구체제인사들과 손잡아유지	공산당독재가 될것이다	잘모르겠다	계
567	10.4	37.4	30.2	5.5	16.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반응구분 (%)				
			잘유지	불가능	구체제 인사들과 손잡아유지	공산당 독재가 될것이다	잘모르겠다
성별	남	41.4	10.6	38.7	32.3	5.5	12.8
	여	58.6	10.2	36.4	28.6	5.4	19.3
학년별	1학년	28.9	10.4	41.5	25.0	6.1	17.1
	2학년	33.0	11.2	39.6	29.4	4.8	15.0
	3학년이상	38.1	9.7	32.4	34.7	5.6	17.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11.3	36.1	29.6	4.8	18.3
	자연계	37.4	9.0	39.6	31.1	6.6	13.7
가정형편별	매우여유	0.7	25.0	25.0	0.0	25.0	25.0
	비교적여유	14.3	11.1	49.4	24.7	7.4	7.4
	그런대로유지	60.8	9.9	38.3	30.1	5.5	16.2
	곤란	19.0	8.3	31.5	32.4	4.6	23.1
	매우곤란	5.1	20.7	17.2	41.4	0.0	20.7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9.3	37.7	31.5	6.2	15.2
	비가입	49.0	11.5	37.1	28.8	4.7	18.0
가정화목별	매우화목	27.5	10.3	38.5	31.4	3.8	16.0
	보통	67.0	9.7	37.9	30.3	6.3	15.8
	화목치못함	5.5	19.4	25.8	22.6	3.2	29.0

7) 急進左傾思想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急進左傾思想을 어떻게 認知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종속이론과 같은 급진좌경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표-21〉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21〉 急進左傾思想에 대한 認識의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067	1.044	8.5	21.5	49.4	9.5	11.1	100

〈表-2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잘모르겠다(49.4%), 긍정적 반응(30%), 부정적 반응(2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70%)이 급진좌경사상은 잘모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8) 民主主義의 多樣性

대학생들이 民主主義의 多樣性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민주주의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22〉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22〉 民主主義의 多樣性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243	1.109	54.0	32.8	3.0	4.1	6.2	100

〈表-2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86.8%)이 부정적 반응(10.3%)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민주주의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다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석된다.

9) 階級없는 사회의 實現可能性

대학생들이 階級없는 사회의 實現可能性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급 없는 사회는 실현될 수 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23〉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23〉 階級없는 사회의 實現可能性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1.891	1.161	6.2	5.1	10.1	28.9	49.7	100

〈表-2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부정적 반응(78.6%)이 긍정적 반응(11.3%)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급 없는 사회의 실현가능성을 부정하는 性向이 높다고 해석되나 긍정적 반응도 11.3%나 되고 있어 주목 된다.

10)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사회에 適用可能性

대학생들이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사회에 適用可能性에 대하여 어떻게 認知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사상은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2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0%)이 부정적 반응(27.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 제시 된다.

<表-24>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사회에 適用可能性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270	1.206	14.6	35.4	22.6	16.9	10.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41.4	3.12	1.24	4.004	13.2	31.5	22.6	20.0	12.8
	여	58.6	3.37	1.17		15.7	38.3	22.6	14.8	8.7
학 년 별	1 학년	28.9	3.38	1.14	0.272	15.9	35.4	28.0	12.8	7.9
	2 학년	33.0	3.27	1.23		15.5	36.4	17.6	20.9	9.6
	3 학년이상	38.1	3.18	1.24		13.0	34.7	22.7	16.7	13.0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34	1.21	0.892	17.7	33.5	23.4	16.1	9.3
	자연계	37.4	3.15	1.19		9.4	38.7	21.2	18.4	12.3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2.75	1.26	0.814	0.0	25.0	50.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3.12	1.14		7.4	38.3	24.7	18.5	11.1
	그런대로 유지	60.8	3.32	1.17		14.8	35.7	24.3	16.8	8.4
	곤란	19.0	3.19	1.34		17.6	31.5	18.5	16.7	15.7
	매우 곤란	5.1	3.52	1.33		24.1	41.4	6.9	17.2	10.3
서어할가입 여부 별	가입	51.0	3.31	1.20	0.726	14.2	38.8	21.5	14.9	10.7
	비가입	49.0	3.23	1.21		15.1	32.0	23.7	19.1	10.1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24	1.25	1.955	15.4	34.0	23.1	14.7	12.8
	보통	67.0	3.24	1.28		13.2	35.3	23.9	17.9	9.7
	화목치 못함	5.5	3.74	1.24		29.0	45.2	3.2	16.1	6.5

* p < .05

〈表-24〉에 나타난 전체 반응경향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M=3.27)가 남자(M=3.12)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계열별과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인문·사회계(M=3.34)가 자연계(M=3.15) 보다, 써어클 가입(M=3.31)이 非가입(M=3.23)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M=3.38), 2학년(M=3.27), 3학년 이상(M=3.1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을 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가정형편별과 가정화목별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매우 곤란(M=3.52), 화목치 못함(M=3.74)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마르크스 사상은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반응을 가장 높게 보이고 있음은 주목이 된다.

11) 共產主義의 非傳統性

대학생들의 共產主義의 非傳統性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공산주의는 우리 전통에 맞지 않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2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8.8%)이 부정적 반응(18.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니다’와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41.2%나 되고 있어 문제시 된다.

〈表-25〉에 나타난 전체반응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과 전공계열별로는 남자(M=3.79)가 여자(M=3.61) 보다, 자연계(M=3.81)가 인문·사회계(M=3.61)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2학년(M=3.55)이 가장 낮으며,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할수록, 가정화목별로 화목치 못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남자(M=3.79)와 비교적 여유(M=3.80)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곤란(M=3.57), 매우 곤란(M=3.28) 및 화목치 못함(M=3.5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 곤란하고 화목치 못할 때 공산주의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된다.

12) 共產主義體制의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增進의 限界性

대학생들이 共產主義體制의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增進의 限界性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중공의 개방화 정책을 보면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증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26〉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2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9.1%)이 부정적 반응(27.7%) 보다 비교적 높으나 ‘아니다’와 ‘잘모르겠다’라는 반응이 40.9%나 되고 있어 주목된다.

13)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守護意志

대학생들이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守護意志가 어떠한지 알아 보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2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88.6%)이 부정적 반응(7.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의지가 매우 높다고 해석이 된다.

〈表-25〉 共產主義의 非傳統性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686	1.237	34.6	24.2	22.9	12.0	6.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구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학년별	남	41.4	3.79	1.31	2.976	43.4	18.7	18.3	12.3	7.2
	여	58.6	3.61	1.18		28.3	28.0	26.2	11.7	5.7
학년별	1학년	28.9	3.75	1.24	2.730	37.2	24.4	20.1	12.8	5.5
	2학년	33.0	3.55	1.30		33.2	18.2	27.8	11.8	9.1
	3학년이상	38.1	3.76	1.17		33.8	29.2	20.8	11.6	4.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61	1.23	2.744	31.5	23.4	25.9	13.0	6.2
	자연계	37.4	3.81	1.25		39.6	25.5	17.9	10.4	6.6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75	1.89	1.151	50.0	25.0	0.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3.80	1.20		37.0	27.2	19.8	11.1	4.9
	그런대로 유지	60.8	3.73	1.20		34.5	25.8	22.9	11.6	5.2
	곤란	19.0	3.57	1.35		36.1	17.6	23.1	13.9	9.3
	매우 곤란	5.1	3.28	1.25		20.7	20.7	34.5	13.8	10.3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66	1.23	0.303	33.2	24.9	23.2	12.5	6.2
	비가입	49.0	3.71	1.25		36.0	23.4	22.7	11.5	6.5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77	1.27	0.355	39.1	22.4	23.1	7.1	8.3
	보통	67.0	3.67	1.22		32.6	25.8	22.6	13.4	5.5
	화목치 못함	5.5	3.52	1.34		35.5	12.9	25.8	19.4	6.5

〈表-26〉 共產主義體制的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增進의 限界性에 대한 全體反應 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446	1.297	23.5	35.6	13.2	17.5	10.2	100

〈表-27〉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守護意志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533	0.952	74.3	14.3	4.2	4.9	2.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57	1.02	0.454	79.6	9.4	3.4	3.4	4.3
	여	58.6	4.51	0.91		70.5	17.8	4.8	6.0	0.9
학년별	1학년	28.9	4.55	0.90	3.394	75.0	12.8	5.5	6.1	0.6
	2학년	33.0	4.39	1.11		69.0	15.0	5.9	5.9	4.3 *
	3학년이상	38.1	4.64	0.83		78.2	14.8	1.9	3.2	1.9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4.46	0.99	3.496	70.1	16.1	5.9	5.6	2.3
	자연계	37.4	4.65	0.88		81.1	11.3	1.4	3.8	2.4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25	2.06	2.185	50.0	0.0	0.0	25.0	25.0
	비교적 여유	14.3	4.47	1.01		71.6	14.8	4.9	6.2	2.5
	그런대로 유지	60.8	4.54	0.91		73.0	16.5	3.8	4.9	1.7
	곤란	19.0	4.62	0.90		80.6	9.3	3.7	4.6	1.9
	매우 곤란	5.1	4.45	1.15		75.9	6.9	10.3	0.0	6.9
써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4.61	0.85	3.590	76.5	14.5	3.1	4.8	1.0
	비가입	49.0	4.46	0.05		71.9	14.0	5.4	5.0	3.6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4.50	0.99	0.025	71.2	18.6	3.2	3.2	3.8
	보통	67.0	4.54	0.93		75.0	13.2	4.7	5.5	1.6
	화목치 못함	5.5	4.55	1.06		80.6	6.5	3.2	6.5	3.2

* p < .05

〈表-27〉에 나타난 전체반응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3학년(M=4.64), 1학년(M=4.55), 2학년(M=4.39)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3학년이 가장 높은, 2학년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공계열별과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자연계(M=4.65)가 인문·사회계(M=4.46) 보다, 써어클 가입(M=4.61)이 비가입(M=4.46)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다.

가정형편별로는 일관성은 없으나 곤란(M=4.62)이 비교적 높은, 비교적 여유(M=4.47)와 매우 곤란(M=4.45)이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배경변인별 전체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3학년(M=4.64)과 자연계(M=4.65)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2학년(M=4.39)이다.

14) 暴力革命 이데올로기에 대한 支持與否

대학생들의 暴力革命 이데올로기에 대한 支持與否가 어떠한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를 폭력혁명에 의하여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를 지지할 수 없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2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4.9%)이 부정적 반응(19.7%)보다 높게 나

<表-28> 暴力革命 이데올로기에 대한 支持與否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811	1.353	45.3	19.6	15.3	10.4	9.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94	1.33	2.187	50.2	20.0	11.5	9.8	8.5
	여	58.6	3.72	1.36		41.9	19.3	18.1	10.8	9.9
학년별	1학년	28.9	3.72	1.39	1.080	43.3	17.7	17.1	11.6	10.4
	2학년	33.0	3.72	1.43		44.4	18.2	14.4	10.7	12.3
	3학년이상	38.1	3.96	1.24		47.7	22.2	14.8	9.3	6.0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0	1.38	2.386	41.7	19.7	16.6	11.3	10.7
	자연계	37.4	3.99	1.28		51.4	19.3	13.2	9.0	7.1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00	1.63	0.888	25.0	0.0	50.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3.74	1.41		43.2	22.2	11.1	12.3	11.1
	그런대로 유지	60.8	3.86	1.34		47.0	18.6	17.1	8.1	9.3
	곤란	19.0	3.87	1.32		46.3	22.2	10.2	14.8	6.5
	매우 곤란	5.1	3.34	1.45		31.0	17.2	20.7	17.2	13.8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3.83	1.35	0.240	45.7	20.1	15.9	8.7	9.7
	비가입	49.0	3.79	1.36		45.0	19.1	14.7	12.2	9.0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68	1.39	1.987	41.0	19.2	17.3	11.5	10.9
	보통	67.0	3.90	1.32		48.2	19.7	14.2	9.7	8.2
	화목치 못함	5.5	3.39	1.48		32.3	19.4	19.4	12.9	16.1

타나고 있으나 '아니다'와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35%나 되고 있어 문제시 된다.

〈表-28〉에 나타난 전체반응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과 전공계열별로는 남자(M=3.94)가 여자(M=3.71) 보다, 자연계(M=3.99)가 인문·사회계(M=3.70)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 가정형편별, 가정화목별로 각각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집단은 3학년 이상(M=3.96), 곤란(M=3.87)과 그런대로 유지(M=3.86), 가정화목별로 보통(M=3.90) 등이며, 낮은 집단은 1학년과 2학년은 M=3.72, 매우 곤란(M=3.34), 화목치 못함(M=3.39)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도 '매우 곤란'과 '화목치 못함'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시 된다. 이것은 매우 곤란하거나 화목치 못한 가정 출신 대학생들이 暴力革命 이데올로기를 더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15) 私有財産制 폐지

대학생들의 私有財産制 폐지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사유재산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29〉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29〉 私有財産制 폐지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567	1.608	1.020	4.4	2.6	5.6	24.0	63.3	100

〈表-2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私有財産制 폐지에 대한 부정적 반응(87.3%)이 긍정적 반응(7%)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私有財産制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意志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되나, '그렇다'와 '잘모르겠다' 라는 반응이 12.6%나 되어 주목된다.

특히 매우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10.3%나 사유재산제 폐지에 '확실히 그렇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에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설정된 15개 問項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에 나타난 傾向性을 요약하면, 마르크스에 대한 認知經路는 강의(60.8%),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고(26.5%),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認識은 폭력주의와 인도주의의 혼합(43.7%), 폭력혁명(27.9%), 자본가 계층이 노동자 계층에 대한 認識은 착취적(62.3%) 이고 독재적(20.5%),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에 대한 認識은 불신(51.7%)과 적대적(25.9%), 노동자 革命可能性은 가능성 있음(62.1%)과 필연적(22.6%), 노동자의 권력장악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 정권은 불가능(37.4%), 구체제 인사들과 손잡아 유지(30.2%), 急進左傾思想에 대한 인식(30%), 民主主義의 多樣性 認識(86.8%), 階級없는 사회의 實現可能性(부정적 반응을 78.6%),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사회에 適用可能性(50%), 共產主義의 非傳統性(58.8%), 共產主義體制의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增進의 한계성(59.1%), 자유민주주

의 체제의 守護意志(88.6%), 暴力革命 이데올로기에 대한 否支持(64.9%), 私有財産制 폐지(부정적 반응을 87.3%) 등이다.

이러한 反應結果를 綜合해 보면, 階級없는 사회의 실현가능성과 私有財産制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認識性向과 민주주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守護意志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자 계층과 자본가 계층 상호간에는 착취적으로 보거나 불신하는 반응이 비교적 높고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사회에 적용가능을 믿는 학생들이 반정도가 되며 공산주의의 非傳統性과 공산주의 체제의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增進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기대보다 낮은 것은 문제시 된다.

나. 經濟·社會領域

1. 經濟次元

經濟에 대한 대학생들의 認識性向을 파악하기 위해 8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性向次元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제시하면, 認知水準에서는 經濟發展에 대한 認識, 經濟發展에 대한 展望, 우리 經濟力의 優越性에 대한 認識, 우리 經濟의 對美從屬에 대한 認識, 우리 經濟의 對日從屬에 대한 認識, 經濟發展과 國民生活水準 등이다. 情意水準에서는 資本主義體制的 優越性, 外債에 대한 憂慮 등이다. 그리고 意志水準의 문항은 設定되지 못했다. 各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經濟發展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經濟發展에 대해서 어떻게 認知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3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73%)이 부정적 반응(28.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에 대한 認識性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30>에 나타난 전체반응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01$)과 학년별($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M=3.94$)가 여자($M=3.61$)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학년별로는 1학년($M=3.87$), 3학년 이상($M=3.75$), 2학년($M=3.6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1학년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3.83$)가 인문·사회계($M=3.69$)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형편별로는 곤란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비교적 여유($M=3.83$)가 가장 높게, 매우 곤란($M=3.38$)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 출신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75.3%가 긍정적 반응을, 매우 곤란한 가정 출신은 65.5%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에 대한 認識性向이 다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經濟發展에 대한 展望

대학생들이 우리 나라의 經濟發展에 대해 어떻게 展望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31>에서 보여 주는

〈表-30〉 우리 나라의 經濟發展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그렇다	
567	3.744	1.104	24.3	48.7	8.1	14.8	4.1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94	1.09	16.157	33.2	46.8	4.7	11.5	3.8
	여	58.6	3.61	1.10		18.1	50.0	10.5	17.2	4.2
학년별	1학년	28.9	3.87	1.11	5.940	30.5	46.3	7.9	10.4	4.9
	2학년	33.0	3.62	1.17		21.9	46.5	9.1	16.6	5.9
	3학년이상	38.1	3.75	1.03		21.8	52.3	7.4	16.7	1.9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69	1.13	2.096	23.7	46.5	9.9	15.2	4.8
	자연계	37.4	3.83	1.05		25.5	52.4	5.2	14.2	2.8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75	1.26	1.261	25.0	50.0	0.0	25.0	0.0
	비교적 여유	14.3	3.83	1.14		29.6	45.7	7.4	12.3	4.9
	그런대로 유지	60.8	3.79	1.08		25.2	49.3	7.8	14.2	3.5
	곤란	19.0	3.65	1.11		21.3	47.2	9.3	19.4	2.8
	매우 곤란	5.1	3.38	1.24		10.3	55.2	10.3	10.3	13.8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78	1.12	0.551	26.6	47.8	7.3	13.8	4.5
	비가입	49.0	3.71	1.09		21.9	49.6	9.0	15.8	3.6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72	1.19	0.195	28.8	41.0	9.0	16.0	5.1
	보통	67.0	3.76	1.05		21.6	53.2	7.6	14.5	3.2
	화목치 못함	5.5	3.71	1.35		35.5	32.3	9.7	12.9	9.7

** p < .01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8.6%)이 부정적 반응(9.5%)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아니다'와 '잘 모르겠다(21.9%)는 반응이 31.4%나 되고 있어 주목된다.

〈表-31〉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05), 전공계열별(P<.01) 및 가정형편별(P<.05)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性別로는 남자(M=4.01)가 여자(M=3.77) 보다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展望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4.09)가 인문·사회계(M=3.73)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

〈表-31〉 우리 나라의 經濟發展에 대한 展望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868	0.994	29.8	38.8	21.9	7.4	2.1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분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01	0.99	6.244	37.4	36.2	18.3	6.4	1.7
	여	58.6	3.77	0.99		24.4	40.7	24.4	8.1	2.4
학년별	1학년	28.9	3.84	1.13	2.833	33.5	35.4	15.9	10.6	3.7
	2학년	33.0	3.75	1.04		26.7	36.4	24.6	9.6	2.7
	3학년이상	38.1	4.00	0.82		29.6	43.5	24.1	2.3	0.5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3	1.04	11.792	25.9	37.2	23.7	10.7	2.5
	자연계	37.4	4.09	0.87		36.3	41.5	18.9	1.9	1.4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00	0.82	2.490	25.0	50.0	25.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88	1.04		29.6	44.4	12.3	11.1	2.5
	그런대로 유지	60.8	3.89	0.96		30.1	37.7	24.6	6.1	1.4
	곤란	19.0	3.93	0.98		32.4	38.9	18.5	9.3	0.9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3.92	0.98	1.811	31.1	40.5	19.7	6.6	2.1
	비가입	49.0	3.81	1.01		28.4	37.1	24.1	8.3	2.2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89	1.08	0.587	35.9	31.4	21.8	7.7	3.2
	보통	67.0	3.86	0.94		26.6	42.4	22.6	7.1	1.3
	화목치 못함	5.5	3.87	1.23		38.7	32.3	12.9	9.7	6.5

* p < .05 ** p < .01

고 가정형편별로는 일관성은 없으나 곤란(M=3.93)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 이상(M=4.00), 1학년(M=3.84), 2학년(M=3.75)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으며,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가입(M=3.92)이 비가입(M=3.81)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정화목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우리 經濟力의 優越性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우리 經濟力의 優越性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력을 북한 보다 훨씬 앞서 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

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32>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3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85%)이 부정적 반응(4.2%)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경제는 북한 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는 긍정적 認識性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表-32> 우리 經濟力의 우월성에 대한 認識의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 응 구 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220	0.871	43.2	41.8	10.8	2.3	1.9	100

4) 우리 經濟의 對美從屬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우리 經濟의 對美從屬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무역에서 계속 늘어나는 대미 흑자를 볼 때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間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33>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33> 우리 經濟의 對美從屬에 대한 認識의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 응 구 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2.228	1.083	3.9	10.4	18.0	40.0	27.7	100

<表-3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정적 반응(67.7%)이 긍정적 반응(14.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경제가 미국에 從屬되어 있다는 認識性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5) 우리 經濟의 對日從屬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우리 經濟의 對日從屬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3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7.5%)이 부정적 반응(18.9%)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認識性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表-34>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 < .05$)과 전공계열별($P < .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2학년($M=3.87$), 3학년 이상($M=3.62$), 1학년($M=3.52$)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M=3.75$)가 자연계($M=3.53$)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34〉 우리 經濟의 對日從屬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670	1.138	23.8	43.7	13.6	13.4	5.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79	1.12	3.959	27.2	46.8	8.1	13.2	4.7
	여	58.6	3.59	1.14		21.4	41.6	17.5	13.6	6.0
학년별	1학년	28.9	3.52	1.30	4.432	25.0	36.6	14.6	12.8	11.0
	2학년	33.0	3.87	1.05		28.9	46.0	10.7	11.8	2.7 *
	3학년이상	38.1	3.62	1.07		18.5	47.2	15.3	15.3	3.7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5	1.12	10.171	26.5	43.7	14.1	10.4	5.4 **
	자연계	37.4	3.53	1.16		19.3	43.9	12.7	18.4	5.7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75	0.96	1.798	25.0	25.0	50.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67	1.13		24.7	39.5	18.5	12.3	4.9
	그런대로 유지	60.8	3.60	1.14		20.9	44.6	13.6	15.4	5.5
	곤란	19.0	3.81	1.16		29.6	43.5	11.1	9.3	6.5
	매우 곤란	5.1	4.00	1.07		34.5	48.3	3.4	10.3	3.4
써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58	1.18	3.569	21.8	42.2	16.3	11.8	8.0
	비가입	49.0	3.76	1.09		25.9	45.3	10.8	15.1	2.9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59	1.23	1.849	26.9	34.6	16.0	15.4	7.1
	보통	67.0	3.72	1.07		22.1	48.4	12.6	12.6	4.2
	화목치 못함	5.5	3.52	1.39		29.0	32.3	12.9	12.9	12.9

* p < .05 ** p < .01

性別과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남자(M=3.79)가 여자(M=3.59)보다, 써어클 非가입(M=3.76)이 가입(M=3.58) 보다 우리 경제의 對日從屬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형편별과 가정화목별로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매우 곤란(M=4.00), 가정화목이 보통(M=3.72) 등이며,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집단은 가정형편이 그런대로유지(M=3.60), 화목치 못함(M=3.5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매우 곤란(M=4.00)과 2학년(M=3.87)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1학년(M=3.52)과 화목치 못함(M=3.52)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6) 經濟發展과 國民生活水準

대학생들이 經濟發展과 國民生活水準과의 관계를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가 크게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내 생활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3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7%)이 부정적 반응(33.2%)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 반응이 57%나 되고 있어 경제발전의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생활과 관계가 크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이

<表-35> 經濟發展과 國民生活水準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 응 구 분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567	3.388	1.336	24.7	32.3	9.9	23.5	9.7	100

(2) 배경변인에 대한 반응결과

변 인	변 인 구분	변 인 구성비	M	S·D	F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 다	잘모르 겠 다	아닌것 같 다	확실히 아니다
성 별	남	41.4	3.47	1.39	1.791	28.1	34.9	5.1	20.0	11.9
	여	58.6	3.33	1.30		22.3	30.4	13.3	25.9	8.1
학 년 별	1 학년	28.9	3.40	1.30	1.051	23.8	31.7	14.6	20.7	9.1
	2 학년	33.0	3.51	1.36		28.9	33.2	8.0	19.8	10.2
	3 학년이상	38.1	3.27	1.34		21.8	31.9	7.9	28.7	9.7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43	0.29	0.428	24.2	33.2	11.0	23.9	7.6
	자연계	37.4	3.33	1.41		25.5	30.7	8.0	22.6	13.2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2.25	0.96	5.068	0.0	0.0	50.0	25.0	25.0
	비교적 여유	14.3	2.96	1.29		12.3	28.4	17.3	27.2	14.8
	그런대로 유지	60.8	3.34	1.32		21.7	35.1	8.4	25.5	9.3 **
	곤란	19.0	3.67	1.35		37.0	26.9	10.2	17.6	8.3
	매우 곤란	5.1	4.21	1.11		51.7	34.5	0.0	10.3	3.4
서어클가입 여 부 별	가입	51.0	3.29	1.34	2.186	21.1	33.2	10.7	23.5	11.4
	비가입	49.0	3.49	1.33		28.4	31.3	9.0	23.4	7.9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23	1.39	1.799	25.0	24.4	10.3	29.5	10.9
	보통	67.0	3.40	1.31		22.9	35.0	10.5	22.1	9.5
	화목치 못함	5.5	4.06	1.21		45.2	38.7	0.0	9.7	6.5

** p < .01

된다.

〈表-35〉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가정형편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곤란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어서, 비교적 여유(M=2.96)가 가장 낮은, 매우 곤란(M=4.21)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 출신 학생들의 40.7%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간에는 관련성이 없음을 느끼는 데 비해서 매우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86.2%나 되고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性別, 전공제열별 및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남자(M=3.47)가 여자(M=3.33)보다, 인문·사회계(M=3.43)가 자연계(M=3.33)보다, 씨어클 非가입(M=3.49)이 가입(M=3.29)보다 긍정적 반응을 비교적 더 높게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2학년(M=3.51), 1학년(M=3.40), 3학년 이상(M=3.27)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화목별로는 화목치 못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매우곤란(M=4.21), 곤란(M=3.67) 및 화목치 못함(M=4.06) 등이며, 낮은 집단은 비교적 여유(M=2.96)와 매우화목(M=3.23) 등이다. 따라서 가정이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학생들은 경제발전의 혜택을 덜 느끼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7) 資本主義體制의 優越性

대학생들이 資本主義體制의 優越性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보다 더 낫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3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70.7%)이 부정적 반응(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반응이 17%이고 ‘잘모르겠다’는 반응까지 합치면 29.3%나 되고 있어 주목된다.

〈表-36〉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M=4.03)가 여자(M=3.70)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 이상(M=4.00)이 가장 높게, 1학년(M=3.72)과 2학년(M=3.74)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공제열별과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자연계(M=4.02)가 인문·사회계(M=3.72)보다, 씨어클 가입(M=3.89)이 非가입(M=3.78)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형편별과 가정화목별로는 일관성이 없으나 곤란(M=3.97)과 화목치 못함(M=4.00)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매우 곤란(M=3.76)과 가정화목이 보통(M=3.81)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8) 外債에 대한 憂慮

대학생들의 外債에 대한 憂慮를 알아보기 위하여 “금년 부터는 외채가 줄어들고 앞으로 외채 문제는 큰 걱정이 안된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3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부정적 반응(76.4%), 긍정적 반응(13.2%), 잘모르겠다(10.4)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外債에 대해서 우려하는 반응이 76.4%나 되고 있어 대부분이 학생들이 外債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表-36〉 資本主義體制的 優越性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836	1.184	35.3	35.4	12.3	11.5	5.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03	1.18	7.818	46.0	30.2	9.4	9.4	5.1
	여	58.6	3.70	1.17		27.7	39.2	14.5	13.0	5.7
학년별	1학년	28.9	3.72	1.28	1.864	37.2	25.0	17.1	14.0	6.7
	2학년	33.0	3.74	1.20		29.9	39.6	11.8	12.3	6.4
	3학년이상	38.1	4.00	1.08		38.4	39.8	9.3	8.8	3.7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2	1.19	2.474	31.0	35.2	14.1	14.6	5.1
	자연계	37.4	4.02	1.15		42.5	35.8	9.4	6.1	6.1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25	0.96	0.695	50.0	25.0	25.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79	1.26		33.3	38.3	13.6	3.7	11.1
	그런대로 유지	60.8	3.81	1.19		34.2	35.1	13.0	12.5	5.2
	곤란	19.0	3.97	1.15		41.7	33.3	8.3	13.9	2.8
	매우 곤란	5.1	3.76	1.12		27.6	41.4	13.8	13.8	3.4
서어들가입 여부별	가입	51.0	3.89	1.19	1.272	37.7	34.6	12.5	9.0	6.2
	비가입	49.0	3.78	1.18		32.7	36.3	12.2	14.0	4.7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87	1.20	0.531	35.9	37.8	10.9	8.3	7.1
	보통	67.0	3.81	1.19		34.7	34.2	13.2	12.9	5.0
	화목치 못함	5.5	4.00	1.10		38.7	38.7	9.7	9.7	3.2

** p < .01

〈表-37〉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과 가정형편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M=1.97)가 남자(M=2.18) 보다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자는 80.1%가 外價에 대해서 우려하는 데 비해서 남자는 71.1%가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별로는 일관성은 없으나 매우 곤란(M=1.59)이 부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비교

〈表-38〉 貧富의 深化程度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201	1.001	48.3	35.3	6.5	7.9	1.9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14	1.07	1.087	48.5	32.3	6.4	10.6	2.1
	여	58.6	4.24	0.95		48.2	37.3	6.6	6.0	1.8
학년별	1학년	28.9	4.13	1.06	2.781	47.0	34.8	4.3	12.8	1.2
	2학년	33.0	4.17	1.04		47.1	35.3	8.0	6.4	3.2
	3학년이상	38.1	4.28	0.92		50.5	35.6	6.9	5.6	1.4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4.24	0.99	3.447	50.4	34.4	5.6	7.9	1.7
	자연계	37.4	4.14	1.02		44.8	36.8	8.0	8.0	2.4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2.75	1.50	3.770	0.0	50.0	0.0	25.0	25.0
	비교적 여유	14.3	4.05	1.06		42.0	35.8	8.6	12.3	1.2
	그런대로 유지	60.8	4.19	0.99		47.0	36.5	7.0	7.8	1.7 **
	곤란	19.0	4.30	0.98		52.8	35.2	3.7	5.6	2.8
서어클가입 여부별	매우 곤란	5.1	4.59	0.78		72.4	17.2	6.9	3.4	0.0
	가입	51.0	4.17	1.04	0.402	49.1	32.2	7.6	9.0	2.1
비가입	49.0	4.23	0.96	47.5		38.5	5.4	6.8	1.8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4.26	1.00	1.251	52.6	32.1	5.8	7.7	1.9
	보통	67.0	4.16	1.01		45.5	37.1	7.1	8.2	2.1
	화목치 못함	5.5	4.45	0.85		61.3	29.0	3.2	6.5	0.0

** p < .01

〈表-39〉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01), 전공계열별(P<.01) 및 학년별(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性別로는 여자(M=2.83)가 남자(M=3.24)보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P<.2.85)가 자연계(M=3.25)보다 부정적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M=3.07), 2학년(M=3.04), 3학년 이상(M=2.91)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表-39〉 社會的 機會均等に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567	2.998	1.367	18.2	24.9	9.3	33.9	13.8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24	1.40	10.220	23.0	29.8	8.5	25.5	13.2	**
	여	58.6	2.83	1.32		14.8	21.4	9.9	39.8	14.2	
학년별	1학년	28.9	3.07	1.45	5.877	23.2	22.0	10.4	28.0	16.5	**
	2학년	33.0	3.04	1.40		18.2	28.9	7.5	29.4	16.0	
	3학년이상	38.1	2.91	1.27		14.4	23.6	10.2	42.1	9.7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2.85	1.34	15.158	14.4	24.5	8.7	36.3	16.1	**
	자연계	37.4	3.25	1.37		24.5	25.5	10.4	29.7	9.9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00	1.83	1.443	25.0	25.0	0.0	25.0	25.0	
	비교적 여유	14.3	3.22	1.41		25.9	22.2	12.3	27.2	12.3	
	그런대로 유지	60.8	3.00	1.33		16.2	27.2	9.6	34.2	12.8	
	곤란	19.0	2.98	1.41		21.3	20.4	7.4	37.0	13.9	
	매우 곤란	5.1	2.41	1.30		6.9	20.7	6.9	37.9	27.6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08	1.38	1.621	20.1	25.3	10.7	30.4	13.5	
	비가입	49.0	2.91	1.35		16.2	24.5	7.9	37.4	14.0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10	1.43	0.383	21.8	26.9	5.8	30.8	14.7	
	보통	67.0	2.98	1.34		16.6	25.5	10.0	34.7	13.2	
	화목치 못함	5.5	2.74	1.37		19.4	6.5	19.4	38.7	16.1	

** p < .01

가정형편별과 가정화목별로는 가정이 곤란할수록, 가정이 화목치 못할수록 부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서어클 가입 여부별로는 가입(M=3.08)이 비가입(M=2.91)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남자(M=3.24), 자연계(M=3.25), 비교적여유(M=3.22) 등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매우곤란(M=2.41)과 화목치못함(M=2.74)이다.

따라서 가정이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학생들은 社會的 機會均等に 대한 부정적 認識性向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3) 우리 사회의 拜金思想

대학생들이 우리사회의 拜金思想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4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60.5%, 부정적 반응이 30.9%,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8.6%로 나타나고 있다.

<表-40> 우리 사회의 拜金思想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413	1.351	23.8	36.7	8.6	18.7	12.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56	1.33	3.192	26.4	40.9	6.0	15.7	11.1
	여	58.6	3.31	1.36		22.0	33.7	10.5	20.8	13.0
학년별	1학년	28.9	3.28	1.39	1.127	22.0	33.5	9.1	21.3	14.0
	2학년	33.0	3.56	1.34		26.7	40.1	7.5	13.4	12.3
	3학년이상	38.1	3.39	1.33		22.7	36.1	9.3	21.3	10.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40	1.34	0.128	22.5	37.7	9.9	17.2	12.7
	자연계	37.4	3.43	1.37		25.9	34.9	6.6	21.2	11.3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2.00	1.41	2.309	0.0	25.0	0.0	25.0	50.0
	비교적 여유	14.3	3.20	1.31		12.3	44.4	8.6	19.8	14.8
	그런대로 유지	60.8	3.40	1.30		22.6	35.7	10.4	22.0	9.3
	곤란	19.0	3.54	1.49		31.5	37.0	5.6	5.6	20.4
서어클가입여부별	매우 곤란	5.1	3.86	1.33	5.954	44.8	27.6	0.0	24.1	3.4
	가입	51.0	3.27	1.40		22.1	33.6	8.3	21.5	14.5
가정화목별	비가입	49.0	3.56	1.29	0.333	25.5	39.9	9.0	15.8	9.7*
	매우 화목	27.5	3.42	1.43		29.5	28.8	9.0	19.2	13.5
	보통	67.0	3.39	1.31		20.5	39.7	9.2	18.9	11.6
	화목치 못함	5.5	3.71	1.42		35.5	38.7	0.0	12.9	12.9

* p < .05

〈表-40〉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非가입(M=3.56)이 가입(M=3.27)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性別과 학년별로는 남자(M=3.56)가 여자(M=3.31)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으며, 2학년(M=3.56), 3학년 이상(M=3.39), 1학년(M=3.28)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어서 비교적 여유(M=3.20)가 56.7% 인데 비해서 매우곤란(M=3.86)은 72.4%로 긍정적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정화목별로는 긍정적 반응이 화목치못함(M=3.71), 매우화목(M=3.42), 보통(M=3.3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매우곤란(M=3.86)과 화목치못함(M=3.71)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더 높은 拜金思想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4) 제주도 觀光産業의 혜택

대학생들이 제주도 觀光産業의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4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정적 반응(69.5%)이 긍정적 반응(17.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관광산업이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認識性向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表-41〉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01), 전공계열별(P<.01) 및 가정형편별(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M=2.52), 3학년 이상(M=2.24), 2학년(M=2.00)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2.32)가 인문·사회계(M=2.19)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져서 매우곤란(M=1.86)은 10.3% 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性別과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여자(M=2.30)가 남자(M=2.15) 보다, 써어클 가입(M=2.31)이 非가입(M=2.17)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1학년(M=2.52), 비교적여유(M=2.52) 등이며, 낮은 집단은 2학년(M=2.00), 곤란(M=2.05)과 매우곤란(M=1.86) 등이다.

5)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感情

대학생들이 잘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感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잘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4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58.7%, 부정적 반응이 25.8%,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15.5%로 나타나고 있어서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否定的 性向을 비교적 높게 보이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表-42〉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非가입(M=3.73)이 가입(M=3.36) 보다 긍정적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性別과 학년별로는 남자(M=3.63)가 여자(M=3.48)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학년(M=3.72)이 가장 높게 1학년(M=3.38)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41〉 제주도 觀光産業의 혜택에 대한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2.242	1.140	4.9	12.3	13.2	40.9	28.6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2.15	1.20	0.856	5.1	12.8	11.1	34.5	36.6
	여	58.6	2.30	1.10		4.8	12.0	14.8	45.5	22.9
학년별	1학년	28.9	2.52	1.28	10.182	8.5	18.3	14.0	34.8	24.4
	2학년	33.0	2.00	1.07		3.2	9.1	10.2	39.6	38.0**
	3학년이상	38.1	2.24	1.05		3.7	10.6	15.3	46.8	23.6
전공세열별	인문·사회계	62.6	2.19	1.13	6.814	5.1	11.0	12.1	42.0	29.9
	자연계	37.4	2.32	1.15		4.7	14.6	15.1	39.2	26.4**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25	1.71	3.809	25.0	25.0	25.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2.52	1.16		6.2	17.3	17.3	40.7	18.5
	그런대로 유지	60.8	2.26	1.13		5.2	11.3	14.2	42.6	26.7**
	곤란	19.0	2.05	1.11		2.8	13.0	8.3	38.0	38.0
	매우 곤란	5.1	2.86	1.06		3.4	6.9	6.9	37.9	44.8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2.31	1.16	1.789	4.5	15.6	13.8	39.1	27.0
	비가입	49.0	2.17	1.12		5.4	9.0	12.6	42.8	30.2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2.14	1.18	1.725	6.4	10.3	7.7	42.3	33.3
	보통	67.0	2.29	1.12		4.2	13.7	15.0	41.1	26.1
	화목치 못함	5.5	2.16	1.19		6.5	6.5	19.4	32.3	35.5

** p < .01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져서 비교적여유(M=3.23)가 48.2%인데 비해서 매우 곤란(M=3.97)은 69%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가정이 화목치 못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져서 화목치못함(M=4.03)은 71%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곤란하고 가정이 화목치못한 학생들이 잘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表-42〉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感情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體反應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541	1.232	26.6	32.1	15.5	20.3	5.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63	1.21	0.992	27.7	34.9	16.2	15.3	6.0
	여	58.6	3.48	1.25		25.9	30.1	15.1	23.8	5.1
학년별	1학년	28.9	3.38	1.34	2.958	27.4	24.4	14.6	25.6	7.9
	2학년	33.0	3.72	1.20		30.5	35.8	13.9	14.4	5.3
	3학년이상	38.1	3.51	1.17		22.7	34.7	17.6	21.3	3.7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55	1.26	0.930	28.7	30.4	14.6	20.0	6.2
	자연계	37.4	3.52	1.18		23.1	34.9	17.6	20.8	4.2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2.50	1.29	2.379	0.0	25.0	25.0	25.0	25.0
	비교적 여유	14.3	3.23	1.28		19.8	28.4	14.8	29.6	7.4
	그런대로 유지	60.8	3.52	1.20		24.6	33.3	16.2	21.4	4.3
	곤란	19.0	3.75	1.28		35.2	32.4	13.0	11.1	8.3
서어클가입 여부별	매우 곤란	5.1	3.97	1.09	11.212	41.4	27.6	17.2	13.8	0.0
	가입	51.0	3.36	1.25		21.1	32.9	14.2	24.9	6.9
가정화목별	비가입	49.0	3.73	1.18	2.166	32.4	31.3	16.9	15.5	4.0
	매우 화목	27.5	3.37	1.35		25.6	28.2	14.1	21.8	10.3
	보통	67.0	3.57	1.18		25.5	34.2	16.1	20.3	3.9
	화목치 못함	5.5	4.03	1.08		45.2	25.8	16.1	12.9	0.0

** p < .01

는 感情의 性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社會와 관련하여 設定된 5개 問項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貧富의 深化程度(83.6%), 社會的 機會均等에 대한 認識(부정적 反應을 47.7%), 우리 社會의 拜

金思想(60.5%), 제주도 觀光産業의 혜택(부정적 반응을 69.5%), 잘사는 사람들에 대한 感情(부정적 반응을 58.7%) 등이다. 이러한 結果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배금사상도 높으며 사회적 기회균등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반응도 반정도가 된다. 그리고 잘사는 사람들에 부정적 감정이 비교적 높고 제주도 觀光産業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대한 否定的 性向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다. 統一·安保·北韓領域

統一·安保·北韓領域을 統一과 安保 및 北韓次元으로 나누고 그것을 性向次元에 따라 分析하기로 한다.

1. 統一次元

統一에 대한 대학생들의 認識性向을 파악하기 위해 4개의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性向次元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제시하면, 認知水準에서는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熟知度, 武力에 의한 統一方式 등이며, 意志水準에서는 統一意志와 統一方式에 대한 認識 등이다. 그리고 情意水準의 문항은 設定되지 못했다. 各 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熟知度

대학생들이 平和統一政策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평화통일정책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43>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43>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熟知度の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289	1.030	11.8	30.5	38.1	13.9	5.6	100

<表-4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42.3%, ‘잘모르겠다’가 38.1%, 부정적 반응이 19.5%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잘 알고 있다는 반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은 문제시 된다.

2) 武力에 의한 統一方式

대학생들이 무력에 의한 統一方式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 통일은 결국 무력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반응결과만 다음 <表-44>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44〉 武力에 의한 統一方式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 응 구 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2.894	1.234	12.0	21.0	25.7	27.0	14.3	100

〈表-4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부정적 반응이 41.3%, 긍정적 반응이 33%,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25.7%로 나타나고 있어 남북 통일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33%나 되고 있는 것은 주목이 된다.

3) 統一意志

대학생들의 統一意志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통일은 되어야 한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45〉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6.4%가 긍정적 반응을, 42%가 부정적 반응을, 11.6%가 잘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45〉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 < .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2학년($M=3.52$), 1학년($P < .3.13$), 3학년 이상($P < .2.91$)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性別과 전공계열별로는 남자($M=3.22$)가 여자($M=3.14$) 보다, 인문·사회계($M=3.21$)가 자연계($M=3.12$)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화목별로는 화목치못함($M=3.35$)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2학년($M=3.52$)과 가정이 화목치 못함($M=3.35$)이며, 낮은 집단은 3학년 이상($M=2.91$)이다.

4) 統一方式에 대한 認識

대학생들이 統一方式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편이 낫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46〉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57.5%, 부정적 반응이 26.3%,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16.2%로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으나 부정적 반응과 ‘잘모르겠다’는 반응을 합치면 42.5%나 되고 있어 문제시 된다.

〈表-46〉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 < .05$)과 전공계열별($P < .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M=3.70$), 3학년 이상($M=3.65$), 2학년($M=3.28$)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고, 1학년이 62.8%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해서 2학년은 51.3%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3.71$)가 인문·사회계($M=3.44$)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性別과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여자($M=3.64$)가 남자($M=3.40$) 보다, 씨어클 가입($M=3.65$)이 비가입($M=3.43$)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45〉 統一意志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176	1.541	31.9	14.5	11.6	23.3	18.7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22	1.61	0.049	36.2	12.8	8.9	21.3	20.9
	여	58.6	3.14	1.49		28.9	15.7	13.6	24.7	17.2
학년별	1학년	28.9	3.13	1.46	7.671	28.7	12.2	17.7	26.2	15.2
	2학년	33.0	3.52	1.53		41.2	18.7	7.0	17.6	15.5 **
	3학년이상	38.1	2.91	1.55		26.4	12.5	11.1	25.9	24.1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21	1.52	0.000	32.1	14.9	11.8	24.2	16.9
	자연계	37.4	3.12	1.58		31.6	13.7	11.3	21.7	21.7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75	1.50	0.181	50.0	0.0	25.0	25.0	0.0
	비교적 여유	14.3	3.10	1.53		32.1	7.4	18.5	22.2	19.8
	그런대로 유지	60.8	3.17	1.50		29.9	15.9	12.2	25.5	16.5
	곤란	19.0	3.20	1.67		37.0	14.8	4.6	18.5	25.5
	매우 곤란	5.1	3.28	1.60		34.5	17.2	10.3	17.2	20.7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15	1.56	0.085	32.2	13.5	11.8	22.5	20.1
	비가입	49.0	3.20	1.52		31.7	15.5	11.5	24.1	17.3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17	1.58	0.156	32.1	16.0	9.6	21.2	21.2
	보통	67.0	3.17	1.52		31.1	13.9	12.9	24.7	17.4
	화목치 못함	5.5	3.35	1.68		41.9	12.9	6.5	16.1	22.6

** p < .01

가정형편별로는 비교적여유(M=3.79)가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매우곤란(M=3.10)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66.7%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해서 매우 곤란한 가정의 학생들은 44.8%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보통(M=3.57), 매우화목(M=3.53), 화목치 못함(M=3.29)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

〈表-46〉 統一方式에 대한 認識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결과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540	1.386	34.2	23.3	16.2	14.8	11.5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40	1.49	3.788	32.8	23.8	10.6	16.2	16.6
	여	58.6	3.64	1.30		35.2	22.9	20.2	13.9	7.8
학년별	1학년	28.9	3.70	1.32	4.288	36.6	26.2	16.5	11.6	9.1
	2학년	33.0	3.28	1.52		31.0	20.3	12.8	17.1	18.7
	3학년이상	38.1	3.65	1.30		35.2	23.6	19.0	15.3	6.9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44	1.39	8.109	30.7	23.4	18.0	14.9	13.0
	자연계	37.4	3.71	1.36		40.1	23.1	13.2	14.6	9.0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25	1.71	1.051	25.0	25.0	25.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3.79	1.31		39.5	27.2	16.0	7.4	9.9
	그런대로 유지	60.8	3.52	1.33		31.3	24.9	17.7	17.1	9.0
	곤란	19.0	3.53	1.57		42.6	15.7	12.3	11.1	18.5
	매우 곤란	5.1	3.10	1.47		24.1	20.7	13.8	24.1	17.2
서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65	1.35	2.814	37.7	21.1	18.7	13.1	9.3
	비가입	49.0	3.43	1.42		30.6	25.5	13.7	16.5	13.7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53	1.51	0.198	38.5	19.9	15.4	8.3	17.9
	보통	67.0	3.57	1.31		32.1	25.5	17.4	16.8	8.2
	화목치 못함	5.5	3.29	1.64		38.7	12.9	6.5	22.6	19.4

* p < .05 ** p < .01

지고 있으며 화목치못한 가정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1학년(M=3.70), 자연계(M=3.71), 비교적여유(M=3.79) 등이며, 낮게 나타나는 집단은 2학년(M=3.28), 매우 곤란(M=3.10), 화목치못함(M=3.29) 등이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학년과 자연계 학생 및 비교

적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의 통일방식을 더 지지하고 있으며, 2학년과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의 학생들은 비교적 덜 지지하는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統一’과 관련하여 設定된 4개 問項에 대한 반응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리의 주장에 의한 統一方式을 지지하는 반응(57.5%)은 비교적 높으나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熟知度(42.3%)는 낮으며, 統一意志(46.4)와 武力에 의한 統一方式을 부정하는 반응(41.3%)도 기대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安保次元

安保에 대한 대학생들의 認識性向을 파악하기 위해 6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은 性向次元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제시하면, 認知水準에서는 駐韓美軍과 韓國의 安保, 平和維持와 核武器保有 등이며, 情意水準에서는 大學生들의 反共意識, 우리 安保에 대한 憂慮 등이고, 意志水準에서는 國土防衛의 意志, 反共優先的 態度 등이다. 各 問項에 대한 반응 결과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駐韓美軍과 韓國의 安保

대학생들이 駐韓美軍과 韓國의 安保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주한 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47>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60.2%, 부정적 반응이 21.5%로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18.3%로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으나 부정적 반응과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39.8%나 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表-47>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 < .01$), 학년별($P < .05$)과 전공계열별($P < .05$)로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性別로는 남자($M = 3.72$)가 여자($M = 41$) 보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 = 3.73$)가 인문·사회계($M = 3.43$)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3학년 이상($M = 3.66$), 1학년($M = 3.57$), 2학년($M = 3.37$)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비교적여유($M = 3.63$)가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매우 곤란($M = 3.1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우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44.8%만이 주한 미군이 한국 안보에 절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일관성이 없으나 화목치 못함($M = 3.35$)이 긍정적 반응을 가장 낮게 보이고 있다.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가입($M = 3.60$)이 비가입($M = 3.47$)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볼 때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남자($M = 3.72$), 자연계($M = 3.73$), 3학년 이상($M = 3.66$) 등이며, 낮은 집단은 2학년($M = 3.37$), 매우곤란($M = 3.17$) 및 화목치못함($M = 3.35$) 등이다. 이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학생, 자연계 및 3학년 이상 학생은 주한 미군이 한국 안보에 절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2학년과 화목치 못한 가정의 학생들은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매우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이 된다.

〈表-47〉 駐韓美軍과 韓國의 安保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體反應결과

N	M	S·D	반응결과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538	1.195	22.6	37.6	18.3	14.1	7.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72	1.23	9.768	31.5	35.7	14.0	11.3	7.7
	여	58.6	3.41	1.15		16.3	38.9	21.4	16.3	7.2 **
학년별	1학년	28.9	3.57	1.21	4.464	25.0	36.6	15.2	17.1	6.1
	2학년	33.0	3.37	1.27		19.3	35.8	19.8	12.8	12.3 *
	3학년이상	38.1	3.66	1.01		23.6	39.8	19.4	13.0	4.2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43	1.23	5.217	20.0	36.3	18.9	15.8	9.0
	자연계	37.4	3.73	1.12		26.9	39.6	17.5	11.3	4.7 *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50	1.00	1.497	75.0	0.0	25.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63	1.12		22.2	40.7	21.0	9.9	6.2
	그런대로 유지	60.8	3.51	1.18		20.9	38.3	19.4	14.2	7.2
	곤란	19.0	3.61	1.22		25.9	38.9	12.0	16.7	6.5
	매우 곤란	5.1	3.17	1.44		24.1	20.7	20.7	17.2	17.2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60	1.23	1.761	21.1	42.6	17.6	12.8	5.9
	비가입	49.0	3.47	1.26		24.1	32.4	19.1	15.5	9.0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51	1.25	0.340	22.4	39.1	14.7	14.1	9.6
	보통	67.0	3.57	1.16		22.6	37.4	19.7	14.5	5.8
	화목치 못함	5.5	3.35	1.38		22.6	32.3	19.4	9.7	16.1

* p < .05

** p < .01

2) 平和維持와 核武器保有

대학생들이 한반도의 平和維持를 위한 核武器保有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침략을 막고 한반도의 平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48〉에서 보여 주는 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45.5%, 부정적 반응

이 35.1%,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19.4%로 나타나고 있다.

〈表-48〉 平和維持와 核武器保有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 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203	1.405	25.0	20.5	19.4	19.9	15.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4.1	3.44	1.42	9.986	32.3	22.1	15.7	17.0	12.8
	여	58.6	3.03	1.37		19.9	19.3	22.0	22.0	16.9
학년별	1학년	28.9	3.21	1.42	1.998	25.0	21.3	19.5	17.7	16.5
	2학년	33.0	3.13	1.44		24.6	18.7	19.8	18.7	18.2
	3학년이상	38.1	3.26	1.36		25.5	21.3	19.0	22.7	11.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06	1.36	7.617	22.0	19.4	18.9	22.0	17.7
	자연계	37.4	3.44	1.36		30.2	22.2	20.3	16.5	10.8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00	1.40	1.653	25.0	50.0	25.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20	1.40		22.2	24.7	21.0	14.8	17.3
	그런대로 유지	60.8	3.23	1.40		26.1	19.4	18.8	22.3	13.3
	곤란	19.0	3.25	1.46		27.8	20.4	18.5	15.7	17.6
	매우 곤란	5.1	3.66	1.32		10.3	17.2	24.1	24.1	24.1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13	1.37	1.214	21.8	21.5	19.4	23.2	14.2
	비가입	49.0	3.27	1.44		28.4	19.4	19.4	16.5	16.2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13	1.49	0.175	26.9	17.9	15.4	20.5	19.2
	보통	67.0	3.23	1.36		23.7	21.8	21.6	19.7	13.2
	화목치 못함	5.5	3.23	1.56		32.3	16.1	12.9	19.4	19.4

** p < .01

〈表-48〉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01)과 전공계열별(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M=3.44)가 여자(M=3.03) 보다, 자연계(M=3.44)가 인문·사회계(M=3.06)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써어클 가입 여부별로는 非가입(M=3.27)이 가입(M=3.13)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 이상(M=3.26), 1학년(M=3.21), 2학년(M=3.13)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형편별로는 큰 차이는 없으나 매우곤란(M=2.66)만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특이하다 하겠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남자(M=3.44)와 자연계(M=3.44)이며, 낮은 집단은 여자(M=3.03), 인문·사회계(M=3.06), 매우곤란(M=2.66) 등이다.

3) 大學生들의 反共意識에 대한 憂慮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反共意識에 대한 憂慮를 알아 보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반공의식을 보면 걱정스럽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 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49>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49> 대학생들의 反共意識에 대한 우려의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567	2.672	1.339	12.9	18.3	13.4	33.9	21.5	100

<表-4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부정적 반응이 55.4%, 긍정적 반응이 31.2%,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13.4%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反共意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반응이 32.1%나 되고 있다.

4) 우리 安保에 대한 憂慮

우리 安保에 대한 憂慮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근 소련과 북한의 밀착관계를 보면 우리의 안보가 걱정스럽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반응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반응결과만 다음 <表-50>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50> 우리 安保에 대한 우려의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567	3.758	1.128	29.1	38.6	15.5	12.5	4.2	100

<表-5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67.7%, 부정적 반응이 16.7%,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15.5%로 우리 安保에 대한 憂慮가 큰 것으로 해석이 된다.

5) 國土防衛의 意志

대학생들의 國土防衛의 意志를 알아 보기 위하여 “6·25와 같은 전쟁이 재발한다면 즉각 최전방에 나설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5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이 42.3%, 부정적 반응이 20%, ‘잘모르겠다’는 반응이 37.7%로 나타나고 있다.

<表-51> 國土防衛의 意志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362	1.229	23.8	18.5	37.7	9.9	10.1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84	1.18	56.440	39.6	22.6	25.5	6.8	5.5
	여	58.6	3.02	1.15		12.7	15.7	46.4	12.0	13.3
학년별	1학년	28.9	3.23	1.21	1.208	18.9	17.1	43.9	7.9	12.2
	2학년	33.0	3.37	1.27		25.7	17.6	35.3	10.7	10.7
	3학이상	38.1	3.46	1.21		25.9	20.4	35.2	10.6	7.9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18	1.18	9.694	17.5	16.6	43.9	10.4	11.5
	자연계	37.4	3.67	1.25		34.4	21.7	27.4	9.0	7.5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00	1.41	0.889	50.0	25.0	0.0	25.0	0.0
	비교적 여유	14.3	3.19	1.15		14.8	19.8	46.9	6.2	12.3
	그런대로 유지	60.8	3.39	1.16		22.3	20.6	38.6	11.3	7.2
	곤란	19.0	3.34	1.44		32.4	11.1	31.5	8.3	16.7
	매우 곤란	5.1	3.45	1.38		31.0	17.2	31.0	6.9	13.8
서어클가입여부별	가입	51.0	3.36	1.22	0.007	22.8	20.1	37.0	10.0	10.0
	비가입	49.0	3.37	1.24		24.8	16.9	38.5	9.7	10.1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49	1.27	5.375	28.8	19.9	34.0	6.4	10.9
	보통	67.0	3.26	1.20		20.5	17.4	40.0	12.0	10.0
	화목치 못함	5.5	3.90	1.14		38.7	25.8	29.0	0.0	6.5

** p < .01

〈表-51〉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性別($P < .01$), 전공계열별($P < .01$) 및 가정화목별($P < .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性別로는 남자($M=3.84$)가 여자($M=3.02$)보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3.67$)가 인문·사회계($M=3.18$)보다 긍정적 반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화목치못함($M=3.90$), 매우화목($M=3.49$), 보통($M=3.26$)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학년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정형편별로는 매우곤란($M=3.45$)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적 반응을, 비교적 여유($M=3.19$)가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특이하다 하겠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남자($M=3.84$), 자연계($M=3.67$), 화목치못함($M=3.90$) 등이며, 낮은 집단은 여자($M=3.02$), 인문·사회계($M=3.18$), 비교적여유($M=3.19$) 등이다.

6) 反共優先의 態度

대학생들의 反共優先의 態度를 알아 보기 위하여 “우리의 현실로 보아 자유나 민주 보다 반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52〉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57.5%가 부정적 반응을, 30.8%가 긍정적 반응을, 11.6%가 ‘잘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유나 민주 보다 반공을 優先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M=2.61$)

〈表-52〉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 < .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1학년($M=2.88$), 3학년 이상($M=2.62$), 2학년($M=2.35$)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일관성이 없으며 비교적 여유($M=2.75$)와 매우곤란($M=2.83$)이 비교적 높은, 그런대로 유지($M=2.58$)와 곤란($M=2.53$)이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가입($M=2.67$)이 非가입($M=2.54$) 보다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화목별로는 가정이 화목치 못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性別과 전공계열별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1학년($M=2.88$), 매우곤란($M=2.83$), 화목치못함($M=2.81$) 등이며, 낮은 집단은 2학년($M=2.35$)과 매우화목($M=2.43$)이다. 이러한 반응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학년과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의 학생들은 自由나 民主 보다 反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고 2학년과 매우 화목한 가정의 학생들은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安保’와 관련하여 設定된 6개 問項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에 나타난 傾向性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주한 미군이 절대 필요하다는 반응(60.2%)과 우리 안보에 대한 우려(67.7%)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 높은 편이나, 평화유지를 위한 核武器保有(45.5%)와 전쟁 재발시 즉각 최전방에 나설 것을 지원하겠다는 반응(42.3%)은 절반 이하로 낮으며 대학생들의 반공의식에 대한 우려(31.2%)는 부정적인 반응(55.4%)이 비교적 높고, 反共 보다는 自由와 民主를 우선

〈表-52〉 反共優先的 態度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2.607	1.365	12.5	18.3	11.6	32.3	25.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반응구분 (%)							
			M	S·D	F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2.62	1.39	1.121	13.6	18.3	10.2	32.3	25.5
	여	58.6	2.60	1.35		11.7	18.4	12.7	32.2	25.0
학년별	1학년	28.9	2.88	1.52	7.843	21.3	19.5	11.0	22.6	25.6
	2학년	33.0	2.35	1.25		7.5	15.0	11.2	37.4	28.9**
	3학년이상	38.1	2.62	1.30		10.2	20.4	12.5	35.2	21.8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2.60	1.40	0.499	13.5	17.7	11.0	31.0	26.8
	자연계	37.4	2.61	1.32		10.8	19.3	12.7	34.4	22.6
가정형별	매우 여유	0.7	2.25	1.26	0.540	0.0	25.0	0.0	50.0	25.0
	비교적 여유	14.3	2.75	1.36		14.8	18.5	12.3	35.8	18.5
	그런대로 유지	60.8	2.58	1.37		12.5	17.7	11.6	32.2	26.1
	곤란	19.0	2.53	1.38		12.0	16.7	12.0	30.6	28.7
	매우 곤란	5.1	2.83	1.37		10.3	31.0	10.3	27.6	20.7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2.67	1.37	1.090	13.5	19.7	10.4	33.6	22.8
	비가입	49.0	2.54	1.36		11.5	16.9	12.9	30.9	27.7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2.43	1.40	2.074	9.6	21.2	7.1	26.9	35.3
	보통	67.0	2.66	1.34		13.2	17.4	13.2	35.3	21.1
	화목치 못함	5.5	2.81	1.49		19.4	16.1	16.1	22.6	25.8

** p < .01

해야 한다는 반응(57.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있다.

3. 北韓次元

北韓에 대한 대학생들의 認識性向을 파악하기 위해 7개 問項이 設定되었다. 이들 問項을 性向

次元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意識內容을 제시하면, 認知水準에서는 北韓의 軍事力優位, 北傀의 南侵可能性, 北韓의 閉鎖性, 北韓社會의 貧富隔差 등이고, 情意水準에서는 北韓同胞에 대한 同情, 北韓에 대한 感情 등이며, 意志水準에서는 北韓에서의 生存與否이다. 各問項에 대한 反應結果는 위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北韓의 軍事力 優位

대학생들이 北韓의 軍事力優位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북한은 남한 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강하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反應傾向은 전체 反應경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反應結果만 다음 <表-53>에 제시하기로 한다.

<表-53> 北韓의 軍事力優位에 대한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 응 구 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4.002	0.985	34.7	42.5	12.9	7.9	1.9	100

<表-53>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77.2%가 긍정적 反應을, 12.9%가 잘 모르겠다는 反應을, 9.8%가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어 북한은 남한 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강하다는 認識性向이 매우 높다고 해석이 된다.

2) 北傀의 南侵可能性

대학생들이 北傀의 南侵可能性에 대해서 어떻게 認識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언젠가는 북괴가 재차 남침해 올 것이다”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54>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59.8%가 긍정적 反應을, 25.6%가 잘 모르겠다는 反應을, 14.7%가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어 북괴의 재침 가능성에 대한 認識性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表-54>에 나타난 전체 反應結果를 背景變因別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01$)과 전공계열별($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M=3.74$), 3학년 이상($M=3.61$), 2학년($M=3.44$) 순으로 긍정적 反應이 낮아지고 있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3.71$)가 인문·사회계($M=3.52$) 보다 긍정적 反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性別과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여자($M=3.64$)가 남자($M=3.52$) 보다, 씨어클 가입($M=3.66$)이 非가입($M=3.52$) 보다 긍정적 反應이 비교적 높다.

가정형편별로는 그런대로 유지($M=3.62$)와 곤란($M=3.65$)에 긍정적 反應이 높고, 비교적 여유($M=3.42$)와 매우곤란($M=3.45$)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화목치 못할수록 긍정적 反應이 높아지고 있다.

背景變因별 전체로 긍정적 反應이 높은 집단은 1학년($M=3.74$)과 자연계($M=3.71$)이며, 낮은 집단은 2학년($M=3.44$), 비교적여유($M=3.42$), 매우곤란($M=3.45$) 등이다.

<表-56> 北韓社會의 貧富隔差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2.194	1.071	3.0	9.2	23.3	33.3	31.2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2.03	1.01	8.991	2.6	5.5	20.4	35.7	35.7 **
	여	58.6	2.31	1.10		3.3	11.7	25.3	31.6	
학년별	1학년	28.9	2.24	1.20	0.486	6.1	10.4	18.9	30.5	34.1
	2학년	33.0	2.22	1.07		2.7	9.6	25.1	32.1	30.5
	3학이상	38.1	2.14	1.96		0.9	7.9	25.0	36.6	29.6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2.22	1.10	0.054	3.7	8.7	24.8	31.3	31.5
	자연계	37.4	2.16	1.03		1.9	9.9	20.8	36.8	30.7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2.75	1.26	1.201	0.0	25.0	50.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2.27	1.12		3.7	13.6	16.0	39.5	27.2
	그런대로 유지	60.8	2.19	1.08		3.5	8.4	23.2	33.0	31.9
	곤란	19.0	2.08	1.00		1.9	6.5	23.1	35.2	33.3
	매우 곤란	5.1	2.41	1.05		0.0	13.8	41.4	17.2	27.6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2.10	1.09	5.000	2.8	10.0	18.3	32.2	36.7
	비가입	49.0	2.29	1.04		3.2	8.3	28.4	34.5	25.5*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2.15	1.06	0.323	3.2	7.7	22.4	34.6	32.1
	보통	67.0	2.21	1.07		2.6	10.3	22.9	33.9	30.3
	화목치 못함	5.5	2.19	1.20		6.5	3.2	32.3	19.4	38.7

* p < .05 ** p < .01

5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화목별로는 가정이 화목치 못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높아지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남자(M=3.91), 1학년(M=3.99), 자연계(M=3.91) 및 화목치 못함(M=3.90) 등이며, 낮은 집단은 3학년 이상(M=3.71), 매우곤란(M=3.55), 씨

〈表-57〉 北韓同胞에 대한 同情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全體反應結果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820	1.051	31.0	34.4	22.4	9.9	2.3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3.91	0.98	4.277	31.9	37.9	21.3	7.7	1.3
	여	58.6	3.75	1.10		30.4	31.9	23.2	11.4	3.0
학년별	1학년	28.9	3.99	1.12	7.786	41.5	32.3	14.6	7.3	4.3
	2학년	33.0	3.79	1.04		29.4	35.3	21.9	11.8	1.6**
	3학년이상	38.1	3.71	1.00		24.5	35.2	28.7	10.2	1.4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7	1.09	6.681	30.1	33.8	22.0	11.0	3.1**
	자연계	37.4	3.91	0.98		32.5	35.4	23.1	8.0	0.9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4.75	0.50	1.788	75.0	25.0	0.0	0.0	0.0
	비교적 여유	14.3	3.89	1.18		40.7	25.9	19.8	8.6	4.9
	그런대로 유지	60.8	3.80	1.02		27.5	38.3	22.9	9.0	2.3
	곤란	19.0	3.88	0.99		33.3	31.5	25.0	10.2	0.0
서어클가입여부별	매우 곤란	5.1	3.55	1.27	4.854	31.0	24.1	17.2	24.1	3.4
	가입	51.0	3.91	1.07		37.7	29.4	21.5	9.3	2.1*
가정화목별	비가입	49.0	3.72	1.02	0.806	24.1	39.6	23.4	10.4	2.5*
	매우 화목	27.5	3.78	1.17		35.3	26.9	22.4	10.9	4.5
	보통	67.0	3.83	1.00		28.7	38.2	22.4	9.2	1.6
	화목치 못함	5.5	3.90	1.08		38.7	25.8	22.6	12.9	0.0

* p < .05

** p < .01

어클 非가입(M=3.55) 등이다.

6) 北韓에 대한 感情

대학생들이 北韓에 대해서 어떤 感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북한이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라는 問項을 제시한 결과, 〈表-58〉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41.

2%가 긍정적 반응을, 38.9%가 부정적 반응을, 19.8%가 잘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表-58> 北韓에 대한 感情의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계
567	3.090	1.354	20.6	20.6	19.8	25.0	13.9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2.92	1.37	2.661	16.6	21.3	19.1	23.8	19.1
	여	58.6	3.21	1.33		23.5	20.2	20.2	25.9	10.2
학년별	1학년	28.9	3.47	1.39	9.727	32.9	22.0	14.6	20.1	10.4
	2학년	33.0	2.83	1.29		13.4	17.6	25.7	25.1	18.2 *
	3학년이상	38.1	3.03	1.32		17.6	22.2	18.5	28.7	13.0
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08	1.36	3.415	20.8	20.0	20.3	24.5	14.4
	자연계	37.4	3.10	1.35		20.3	21.7	18.9	25.9	13.2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2.25	1.89	1.595	25.0	0.0	0.0	25.0	50.0
	비교적 여유	14.3	3.36	1.43		30.9	22.2	9.9	25.9	11.1
	그런대로 유지	60.8	3.10	1.31		19.4	21.2	21.7	25.8	11.9
	곤란	19.0	2.94	1.47		21.3	18.5	15.7	22.2	22.2
	매우 곤란	5.1	2.83	1.00		3.4	20.7	41.4	24.1	10.3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3.16	1.38	1.006	23.9	19.4	19.0	24.6	13.1
	비가입	49.0	3.01	1.33		17.3	21.9	20.5	25.5	14.7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03	1.45	0.375	23.7	17.3	13.5	28.8	16.7
	보통	67.0	3.12	1.32		19.5	22.4	21.6	24.2	12.4
	화목치 못함	5.5	3.00	1.39		19.4	16.1	29.0	16.1	19.4

** p < .01

<表-58>에 나타난 전체 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학년별(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으며 1학년(M=3.47), 3학년 이상(M=3.03), 2학년(M=2.83)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性別과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여자(M=3.21)가 남자(M=2.91) 보다, 씨어클 가입(M=3.16)이
 非가입(M=3.01) 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정형편별로는 가정이 곤란
 할수록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1학년(M=3.47), 비교적여유(M=3.36), 여자
 (M=3.21) 등이며, 낮은 집단은 남자(M=2.92), 2학년(M=2.83), 곤란(M=2.94)과 매우곤란(M=
 2.83) 등이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1학년과 여학생 및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은 '북한이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데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으며, 2학
 년과 남학생 및 곤란한 가정의 학생들은 긍정적 반응이 낮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7) 北韓에서의 生存與否

대학생들이 北韓에서의 生存與否에 대해서 어떤 意志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조건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북한 공산치하에서 살지는 않겠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表-59>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64.5%가 긍정적 반응을, 20.5%가 잘모르겠다는 반응
 을, 15%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무리 좋은 조건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북한 공산치하에
 서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잘모르겠다'와 부정적 반응이 35.5%나
 되는 것은 문제시된다.

<表-59>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전공계열별(P<.01), 씨어클 가
 입여부별(P<.05), 가정형편별(P<.01)로는 有意한 差를 보이고 있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M
 =4.14)가 인문·사회계(M=3.77) 보다, 씨어클 가입여부별로는 가입(M=4.02)이 非가입(M=3.
 79) 보다 긍정적 반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형편별로는 곤란(M=4.04)이 긍정
 적 반응이 가장 높고 매우곤란(M=2.9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곤란한 가정 출
 신 학생들이 68.5%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해서 매우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27.5%
 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배경변인별 전체로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남자(M=4.01), 3학년 이상(M=4.00), 자연계
 (M=4.14), 곤란(M=4.04), 씨어클 가입(M=4.02) 등이며, 낮은 집단은 매우곤란(M=2.97)과 화
 목치 못함(M=3.65)이다. 이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학생, 3학년 이상, 자연계, 곤란한
 가정 출신 학생 및 씨어클에 가입한 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보장되더라도 북한 공산치하
 에는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
 출신들은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韓'과 관련하여 설정된 7개 問項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에 나타난 傾向性을
 요약하면, 北韓의 軍事力 優位(77.2%), 北韓의 閉鎖性(66.7%), 北韓 사회에도 貧富隔差가 있으며
 (64.5%), 北韓同胞에 대한 同情(65.4%), 北傀의 再侵可能性(59.8%) 등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
 을 높게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이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41.2%)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북한 공산치하에는 살지 않겠다는
 의지(64.5%)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59〉北韓에서의 生存與否에 대한 全體 및 背景變因別 反應結果

(1) 전체반응결과

N	M	S·D	반응구분 (%)					계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567	3.907	1.286	48.5	16.0	20.5	7.6	7.4	100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M	S·D	F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41.4	4.01	1.24	0.877	52.3	15.3	18.7	8.1	5.5
	여	58.6	3.83	1.31		45.8	16.6	21.7	7.2	8.7
학년별	1학년	28.9	4.82	1.41	0.141	48.2	15.9	17.7	6.1	12.2
	2학년	33.0	4.87	1.31		47.1	17.6	18.7	8.6	8.0
	3학년이상	38.1	4.00	1.16		50.0	14.8	24.1	7.9	3.2
진공계열별	인문·사회계	62.6	3.77	1.33	8.173	42.8	17.7	21.7	8.7	9.0 **
	자연계	37.4	4.14	1.18		58.0	13.2	18.4	5.7	4.7
가정형편별	매우 여유	0.7	3.50	1.92	4.125	50.0	0.0	25.0	0.0	25.0
	비교적 여유	14.3	3.96	1.36		53.1	16.0	14.8	6.2	9.9
	그런대로 유지	60.8	3.94	1.28		49.9	15.7	19.4	8.4	6.7 **
	곤란	19.0	4.04	1.10		47.2	21.3	22.2	6.5	2.8
	매우 곤란	5.1	2.97	1.45		24.1	3.4	41.4	6.9	24.1
서어클가입 여부별	가입	51.0	4.02	1.25	4.558	52.2	16.3	19.4	5.2	6.9 *
	비가입	49.0	3.79	1.32		44.6	15.8	21.6	10.1	7.9 *
가정화목별	매우 화목	27.5	3.91	1.40	0.009	51.9	16.0	15.4	4.5	12.2
	보통	67.0	3.93	1.23		47.6	16.6	21.6	9.2	5.0
	화목치 못함	5.5	3.65	1.40		41.9	9.7	32.3	3.2	12.9

* p < .05

** p < .01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의 目的은 濟州道 大學生들의 政治意識을 종합적으로 把握하려는 것이다. 政治意識의 概念定義와 國內에서 大學生들을 대상으로 行하여진 政治意識에 관한 研究들을 분석한 후에 政治意識의 概念模型을 內容次元에서는 政治·이데올로기, 經濟·社會, 統一·安保·北韓領域으로 分類하였으며, 이 內容들은 態度構成理論을 토대로 認知, 情意, 意志 등 세 水準의 心理的 性向으로 分類하였다.

標集方法은 大學別로 연구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수님들의 협조를 얻어 質問紙를 실시 회수 하였다. 標集된 人員은 860명이었으나, '誠意度檢證問項'에 一貫성이 없는 反應의 應答紙를 제외하고 실제로 分析된 標集對象은 567명이었다.

測定道具는 政治意識의 概念模型에 맞추어서, 政治·이데올로기 領域 25개 問項, 經濟·社會 領域 13개 問項, 統一·安保·北韓領域 17개 問項 등 總 55개의 問項을 만들었다.

이들 問項의 測定은 選多型과 Likert式을 사용하였으며, F檢證에 의하여 6개의 背景變因別 各集團의 差의 意義도가 分析되었다.

各 領域別에 따른 次元別 反應結果는 편이상 領域別로 全體反應分析比率를 제시한 다음, 이를 次元別로 分類해서 分析 및 解釋을 하였으며, 그리고 背景變因別로 두드러진 特徵的 性向만을 要約, 提示하였다.

1. 政治·이데올로기 領域

정치·이데올로기 領域에서 긍정적 反應傾向을 높게 보인 政治意識의 構成內容은 人物中心의 政治的 選好(88%), 國家權威의 認識(89.7%), 민주주의 多樣性 認識(86.8%),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守護意志(88.6%) 등이고, 비교적 肯定도가 높은 政治意識은 國會權限強化(59.6%), 南韓의 民族史的 正統性(65.8%), 政治에 대한 관심(66.8%), 改憲意志(73.1%), 政治能力感(67.6%), 共產主義의 非傳統化(58.8%), 共產主義體制의 經濟發展과 國民福祉의 限界性(59.1%), 暴力革命 이데올로기에 대한 非支持(64.9%) 등이며, 비교적 낮은 肯定的 反應 내지 否定的 反應傾向을 보인 構成內容은 憲法과 政治의 관련성에 관한 認識(부정적 반응율 84.1%), 合意改憲에 대한 展望(부정적 반응율 51.5%), 急進左傾思想에 대한 認識(30%), 階級없는 社會의 實現可能性(부정적 반응율 78.6%),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사회에 적용가능성(50%), 私有財產制 폐지(부정적 반응율 87.3%)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先決問題는 정치발전(39.5%)·빈부격차해소(28.5%)·통일(19.2%)·경제발전(12.7%) 순으로 나타났고, 마르크스에 대한 認知經路는 강의(60.8%)·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고(26.5%), 마르크스主義에 대한 認識은 폭력주의와 인도주의의 혼합(43.7%), 폭력혁명(27.9%)·잘모르겠다(20.3%)·인도주의(8.1%) 순이며, 자본가 계층이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인식은 착취적(62.3%)·독재적(20.5%)·잘모르겠다(10.2%)·민주적(7.1%) 순이고, 노동자 계층이

자본가 계층에 대한 인식은 불신(51.7%)·적대적(25.9%)·아첨적(16.8%)·호의적(5.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勞働者 革命可能性은 가능성있음(62.1%)·필연적(22.6%)·불가능(9.7%)·잘모르겠다(5.6%) 순이고, 노동자의 권력장악에 대한 인식은 노동자 정권은 불가능(37.4%)·구체제 인사들과 손잡아 유지(30.2%)·잘모르겠다(16.6%)·잘 유지할 수 있다(10.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보여 주고 있는 政治·이데올로기 領域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다시 政治와 이데올로기 次元 별로 要約해 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政治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性向을 보면, 우리 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政治發展을 들고 있고, 政治는 制度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認識(88%)이 매우 높으며, 民主政治發展과 깊은 관련이 있는 國會權限強化(59.6%), 政治에 대한 관심(66.8%), 政治能力感(67.6%)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南韓의 民族史적 正統性에 대한 認識(65.8%)이 기대 보다 낮은 것은 문제시 되며, 改憲意志(73.1%)는 비교적 높으나 合意改憲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51.5%) 政治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데올로기 次元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主義를 폭력주의와 인도주의의 혼합으로 보거나 폭력혁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勞働者 革命은 可能性이 있거나(62.1%) 필연적(2.6%)으로 보는 認識性向이 높으며 자본가 계층은 노동자 계층에 대하여 착취적이거나 독재적으로 보고 있고(82.8%), 노동자 계층은 자본가 계층에 대하여 불신하거나 적대적으로 본다는 반응(77.6%)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시 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일부 기업가들에 대한 불신과 경제발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기업가들도 근로자의 복지에 대해서 소홀리 해온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이 된다. 그리고 急進左傾思想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나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 사회에 적용 가능성을 믿는 학생들이 반 정도가 되며, 共產主義의 非傳統性과 共產主義體制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의 한계성(59.1%)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으나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고, 階級없는 사회의 실현 가능성과 私有財產制 폐지(부정적 반응을 87.3%)를 부정적으로 보는 認識性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民主主義의 多樣性에 대한 인식과 自由民主主義體制의 守護意志(88.6%)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아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支持하고 維持하려는 의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暴力革命 이데올로기에 대한 非支持率(64.9%)이 기대 보다 낮은 것은 우려된다.

2. 經濟·社會領域

經濟·社會領域에서 긍정적 반응경향을 높게 보인 政治意識의 構成內容은 우리 經濟力의 優越性에 대한 認識(85%), 貧富의 深化程度(83.6%), 外債에 대한 우려(76.4%) 등이며,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 높은 構成內容은 經濟發展에 대한 認識(73%), 經濟發展에 대한 展望(68.6%), 우리 經濟의 對美從屬에 대한 認識(67.7%), 우리 경제의 對日從屬에 대한 인식(67.5%), 經濟發展과 國民生活水準과의 관계(57%),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70.7%), 우리 社會의 拜金思想(60.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肯定的 反應 내지 否定的 反應傾向을 보인 構成內容은 社會的 機會均等에 대한 인식(부정적 반응을 47.7%), 제주도 觀光產業이 道民들에게 주는 혜택(부정적 반응을 69.5%),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感情(부정적 반응을 58.7%) 등이다.

이상에서 보여 주고 있는 經濟·社會領域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다시 經濟와 社會次元別로 要約해 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經濟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性向을 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가 발전했고 경제발전의 전망도 긍정적이며(68.6%), 資本主義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感情的 性向이 비교적 높고 우리 경제가 북한 보다 월등히 우월함을 인식하고(85%) 있으나 우리 경제가 對美·對日從屬이 되어 있다는 認識性向(67.5%)이 비교적 높으며, 경제발전이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혜택이 돌아오고 있다는 데 대한 認識性向(57%)이 기대 보다 낮고 外債에 대한 우려(76.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社會次元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貧富의 差가 점차 심해지고 있으며, 부지런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다는 認識性向(47.7%)이 긍정적 반응(43.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拜金思想(60.5%)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 觀光産業이 道民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반응(69.5%)을 보이고 있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否定的 感情(58.7%)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 社會에 대한 否定的 認識性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된다.

3. 統一·安保·北韓領域

統一·安保·北韓領域에서 긍정적 반응 경향을 비교적 높게 보인 政治意識의 構成內容은 우리 주장에 의한 統一方式支持(57.5%), 駐韓美軍과 韓國의 安保(60.2%), 우리 安保에 대한 우려(67.7%), 北韓의 軍事力 優位(77.2%), 北傀의 再侵可能性(59.8%), 北韓의 閉鎖性(66.7%), 北韓社會의 貧富隔差(64.5%), 北韓同胞에 대한 同情(65.4%) 등이며, 비교적 낮은 肯定的 反應 내지 否定的 反應傾向을 보인 構成內容은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熟知度(42.3%), 武力에 의한 統一方式(부정적 반응을 41.3%), 統一意志(46.4%), 平和維持와 核武器保有(45.5%), 대학생들의 反共意識에 대한 우려(31.2%), 國土防衛의 意志(42.3%), 反共優先의 態度(부정적 반응을 57.5%), 北韓에 대한 感情(41.2%), 北韓에서의 生存與否(부정적 반응을 64.5%) 등이다.

이상에서 보여 주고 있는 統一·安保·北韓領域에 대한 全體反應結果를 다시 統一, 安保 및 北韓次元 별로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統一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性向을 보면,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熟知度(42.3%)와 統一意志(46.4%)에 대한 認識性向이 낮으며, 武力에 의한 統一方式을 부정하는 반응도 낮고, 우리의 주장에 의한 統一方式을 지지하는 반응(57.5%)은 비교적 높으나 기대치와는 거리가 있다.

安保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性向을 보면, 우리 安保를 위해서는 駐韓美軍이 필요하다는 認識性向이 비교적 높고 전쟁 재발과 평화유지를 위한 核武器保有(45.5%) 및 대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대한 우려는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安保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으나 전쟁재발시 즉각 최전방에 나설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약하며 反共 보다는 自由나 民主를 우선해야 된다는 認識性向(57.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北韓次元에서 나타난 특징적 性向을 보면, 대학생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 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認識性向이 높고 北傀의 再侵可能性(59.8%)이 비교적 높으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체제집단이고 북한 사회에도 貧富隔差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한 동포에 대한 同情心은 비교적 크지마는 북한이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41.2%)이 낮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북한 공산치하에서 살지 않겠다는 의지(64.5%)는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보인다.

背景變因別 反應傾向은 대체로 政治次元에서는 남자가 여자 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고, 이데올로기 次元에서는 2학년과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 출신 학생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교적 더 긍정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의지는 비교적 더 약하며 폭력혁명 이데올로기를 비교적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經濟次元에서는 대체로 남학생과 자연계 및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의 학생들이 비교적 더 긍정적 반응을, 매우 곤란한 학생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社會次元에서는 2학년과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社會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다.

統一次元에서는 2학년과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의 統一方式을 비교적 덜 지지하고, 반면 統一意志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安保次元에서는 남학생과 자연계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2학년 학생들은 비교적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北韓次元에서 부정적 반응이 낮은 집단은 매우 곤란한 가정의 학생들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체로 2학년과 가정이 매우 곤란하고 화목치 못한 학생들이 政治意識에 대해서 비교적 더 부정적인 認識性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이 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씨어클에 가입한 학생들이 非가입한 학생들보다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씨어클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질문지

이 질문지는 대학생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본 연구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대답한 내용은 모두 숫자로 통계처리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이데올로기 연구실

1. 귀하는 마르크스에 관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 1) 강의
 - 2) 마르크스가 직접 쓴 작품을 읽고
 - 3) 마르크스에 관한 책을 읽고
 - 4) 기타
2. 귀하가 아는 바로 마르크스주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폭력혁명
 - 2) 폭력주의와 인도주의의 혼합
 - 3) 인도주의
 - 4) 모르겠다.
3.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 1) 착취적이다.
 - 2) 독재적이다.
 - 3) 민주적이다.
 - 4) 도르겠다.
4.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대하여
 - 1) 적대적이다.
 - 2) 불신하다.
 - 2) 호의적이다.
 - 4) 아첨적이다.
5. 노동자 혁명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 2) 가능성은 있다.
 - 3) 불가능하다.
 - 4) 잘모르겠다.
6. 만일 노동자가 권력을 장악한다면?
 - 1) 잘 유지할 수 있다.
 - 2) 노동자의 정권은 불가능하다.
 - 3) 구체제의 인사들과 손을 잡아 유지할 것이다.
 - 4) 공산당 독재가 될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7.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 1) 통일
 - 2) 경제발전
 - 3) 빈부의 격차 해소
 - 4) 정치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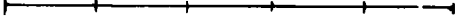




확실히 그렇것 잘못르 아닌것 확실히
그렇다. 같 다. 겠 다. 같 다. 아니다.

8. 헌법만 좋으면 정치는 잘 될 것이다.
9. 정치는 제도보다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10. 정치가 잘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11. 나의 삶과 직결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
12.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3. 합의 개헌은 이루어질 것이다.
14. 민족사의 흐름을 계승하는 정치체제는 남한이지 북한은 아니다.
15. 종속이론과 같은 급진좌경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
16. 민족주의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17. 국가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민주적이 아니다.
18. 자유 민주주의체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
19.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훌륭하게 키워갈 자신과능력을 가지고 있다.
20. 우리 사회를 폭력혁명에 의하여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를 지지할 수 없다.
21. 계급 없는 사회는 실현될 수 있다.
22. 사유재산제도는 없애야 한다.
23. 마르크스의 사상은 현대에도 적용될 수 있다.
24. 우리나라의 경제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25. 국민의 복지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보다 더 낫다.
26.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27.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다.
28.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내 생활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닌것 같다. 확실히
그렇다. 같다. 아니다. 같다. 아니다.

29. 우리사회에서는 빈부의 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30. 잘사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31. 금년부터는 외채가 줄어들고 앞으로 외채문제는 큰 걱정이 안된다.
32. 무역에서 계속 늘어나는 대미 흑자를 볼 때 우리 경제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3. 우리경제는 구조적으로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다.
34. 우리사회는 누구나 부지런히 노력하면 다 잘 살수 있다.
35.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36. 합의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37. 남북한은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통일은 되어야 한다.
38.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이 아니면, 차라리 분단되어 있는 편이 낫다.
39. 우리정부가 제시하는 평화통일 정책을 나는 잘 알고 있다.
40. 남북통일은 결국 무력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41. 북한은 남한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강하다.
42. 언젠가는 북괴가 재차 남침해울 것이다.
43. 6.25 같은 전쟁이 재발한다면 즉각 최전방에 나설 것을 지원하겠다.
44. 주한 미군이 주둔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다.
45. 공산주의는 우리 전통에 맞지 않다.
46. 대학생들의 반공의식을 보면 걱정스럽다.
47. 우리의 현실로 보아 자유나 민주보다 반공이 선행 되어야 한다.

확실히 그런것 잘모르 아던것 확실히
그렇다. 같 다. 겠 다. 같 다. 아니다.

48. 최근 소련과 북한의 밀착관계를 보면 우리의 안보가 걱정스럽다. 
49. 중공의 개방화 정책을 보면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증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50.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고생하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51. 계급 없는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52. 아무리 좋은 조건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북한공산치하에서 살지는 않겠다. 
53. 북한의 침략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54.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폐쇄 집단이다. 
55. 북한에는 빈부의 격차가 거의 없다. 
56. 북한이 부강해지는 것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 다음 문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십시오.

57.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58. 귀하의 학년은?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이상
59. 귀하의 전공 계열은?
1) 인문·사회계 2) 자연계
60. 귀하의 경제적인 가정 형편은?
1) 매우 여유 있다. 2) 비교적 여유 있다.
3) 그런대로 유지되는 형편이다.
4) 곤란하다. 5) 매우 곤란하다.
61. 귀하의 서어클 가입 여부는?
1) 가입 2) 비가입
62. 귀하의 가정은 얼마나 화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화목하다. 2) 보통이다. 3) 화목치 못하다.

Summary

A Study on Political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 in Cheju-Do

Kim Hang-won, Ko sung-june, Kim Tae-bo

The purpose of study is to synthetically understand political consciousness of university student in cheju.

In the level of contents it is classified into Politics, Ideology, Economy, Society, Unification-Security, North Korea and in the level of behavior this contents are classified into cognition, affection, and will based on the theory of attitude constructio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860 students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ut 567 students were actually examined in this investigation.

Questionnaire is composed of 55 items for answer and these items were measured by Likert scale. The analysis had been processed by means of average (M), percentage(%) and F check.

As a result, statistics show that the answer for the question of the urgentist problem in Korea is political development.

Those who recognize that in politics politician is more important than institution are 88%. To the possibility of mutual consent for the amendment of a constitution, half (51.5%) students say yes.

In Ideology, most students understand marxism is a mixture of violence and humanism and the relation between bourgeois and proletariat is antagonistic.

Half students believe that marxism is applicable to modern society. In defendency of liberal democracy 88.6% of students are determinate.

In Economics dimension, the prospect of Korean Economy development is positive as much as 68.6%.

Most recognize that capitalistic system is superior to socialistic system and S. K. Economy is much higher than N. K. and the opinion and anxiety that our economy is dependent to the U. S. A. and Japan is expressed highly (67.5%).

In societal dimension, most students expressed our society has the serious problem of economic inequality.

In Unification-Security, less than half students understand th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of R. O. K., but most agree with the presence of U. S. Army in korea.

To the North Korea, almost understand N. K. military forces is much stronger than R. O. K. and N. K. is trying to attack S. K. they also have deep pity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